

1920~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대중’ 인식

허 수*

머리말

1. ‘대중’ 개념의 현황과 접근방법
 - 1) ‘대중’ 개념의 용례 현황
 - 2) ‘대중’ 용례의 두 흐름: 표면과 심층
 - 3) 시기구분과 절단면
2. ‘대중’ 개념의 시기별 변동
 - 1) 사회주의 수용과 ‘대중’의 발견 (1920~1925)
 - 2) ‘대중’을 전유하기 위한 의미투쟁 (1926~1933)
 - 3) ‘대중문화’의 부침(浮沈) (1934~1942)

맺음말

머리말

1919년에 발생한 3.1운동에서 식민통치 하에 있던 조선 사람들은 민족의 독립을 향한 열망과 정치·사회적 개혁 요구를 일시에 표출했다. 3.1운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대표 논저 : 2010 「식민지기 ‘집합적 주체’에 관한 개념사적 접근」 『역사문제연구』 23, 역사문제연구 ; 2009 「리셀사상의 수용과 『개벽』의 사회개조론 형성」 『역사문제 연구』 21, 역사문제연구 ; 2008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62, 대동문화연구소

동에서 내건 독립요구는 비록 실현되지 못했으나, 이 운동은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를 끌어내어 ‘문화정치’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민족해방운동의 조직적 중심을 산출했다. 그러나 3.1운동이 끼친 더 의미심장한 영향은, 이 운동을 계기로 민족의식이 각성된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억눌린 욕구를 표현하면서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¹⁾

일제 식민권력 뿐만 아니라 조선인 지식 엘리트층도 이들의 집단적 힘에 주목하면서 그 힘을 자신들의 사상적 지향 혹은 운동적 목적을 이루는 실천과 결부시키고자 했다. 1920년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민중’, ‘대중’ 등은 지식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호명(呼名)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로, 이러한 용어 사용법에는 지식인 등 호명 주체들이 가진 운동 전략과 담론적 차별화, 현실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어에는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진행된 근대적 변화, 특히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나, 조선사람들을 지배하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식민권력자의 시선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민중’, ‘대중’ 등 집단적인 행위자에 관한 용어를 분석하는 작업은, ‘지배-저항’의 대립양상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의 근대적 변화상까지 포함하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작업에는 조선인 집단을 호명하는 주요 용어뿐만 아니라 그와 인접관계에 놓인 용어 등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하고, 해당 용어들의 전후 맥락과 발화자의 의도, 현실 입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분석과 과학적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

1) 이때의 ‘정치적 주체’란 참정권을 비롯한 공민권 행사라는 좁은 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선인 다수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사회운동 및 민족운동을 주도하는 지식인들도 자신들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조선인 다수의 동향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한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

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인 사회가 활성화된 1920~30년대의 '대중' 용어에 초점을 맞추고, 이 용어를 개념사적 접근법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 방면의 본격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중'에 관한 연구는 '민중', '국민', '인민', '시민' 등 인접 개념들과의 관계망을 함께 고려해야만 온전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단 '대중' 개념의 분석에 집중하여 이 개념의 용례들을 분류, 가공, 검토하고자 했다. 이러한 범위 제한은 필자의 역량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논문의 초점을 '종합적 관찰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수립에 두고 그 이외의 변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왜 그 중에서도 하필 '대중' 개념에 주목했는가 하면, 1920년대부터 '대중' 개념은 한편에서는 사회주의의 영향,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화와 관련한 동향을 반영하면서 등장한다는 점에서²⁾, 앞에서 언급한 인접 개념들에 비해 당시의 시대상을 복합적이고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주요 잡지, 특히 『개벽』, 『별건곤』, 『삼천리』에 수록된 '대중' 개념의 용례이다. 이 세 잡지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간되었고, 오늘날 잡지의 본문 내용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검색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 잡지는 발행주체나 성향 등의 측면에서 좌파 지식인의 생각까지 충분히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잡지들은 발행주체의 정치적, 사상적 성향만을 특권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 일반의 동향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종합일간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 서술하겠지만 실제 분석결과에서도 이 잡지들은 '대중' 개념에 관한 좌파 지식인의 용법을 다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인 대상이나 이 세 개의 잡지만으로도 식민지 지식인 일

2) 허수, 2010 「식민지기 '집합적 주체'에 관한 개념사적 접근-『동아일보』 기사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3, 역사비평사, 158쪽

반이 가진 ‘대중’ 인식의 개요를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식민지기 ‘대중’ 및 ‘대중’ 개념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지만, 관련 연구로부터 ‘대중’에 대한 견해의 갈래를 살펴볼 수는 있다. ‘대중’에 대한 견해는 도시대중문화의 형성과 관련한 문화적 주체로 파악하는 입장과,³⁾ 식민권력의 지배 대상이나 민족·사회주의 운동의 동원 대상으로 파악하는 입장⁴⁾으로 양분된다. 이러한 기존의 견해는 당시의 ‘대중’ 주체가 가진 다면적 측면, 즉 운동적 주체와 통치 대상, 그리고 대중문화 소비자로서의 면모를 각각 부각시킨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견해는 연구자의 현재적 관심을 강하게 투영한 나머지 식민지시기의 역사성 속에서 어떤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어떤 측면이 부차적인 것에 머물렀는지에 관한 입체적·종합적 고찰을 전개하진 못했다. 최근 필자는 ‘대중’ 및 ‘민중’, ‘국민’, ‘인민’ 등 ‘집합적 주체’를 ‘개념사’ 방법론으로써 고찰한 연구에서, 개별적인 사건사 차원에 갇혀 ‘대중’ 이해를 탈피하여 ‘대중’ 개념이 가진 복합적 측면, 즉 사회주의 운동과 도시화의 진전 상황을 반영

3) 이경돈은 1920년대 후반의 상황과 관련하여 ‘대중’을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출된 문화주체’로 보거나, ‘제국의 엘리트들이 라디오를 통해, 민족과 민중에 맞설 수 있는 주체로 수립한 집단적 주체의 상상력’ 등으로 보았다(이경돈, 2009 『문학 이후』, 소명출판, 307~313쪽).

4) 여기에는 윤해동과 천정환이 포함된다. 윤해동은 대중의 등장과 식민권력 및 민족·사회주의 운동이 수행한 ‘대중의 영토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윤해동, 2004 「식민지 근대와 대중사회의 등장」 임지현·이성시 엮음,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 기획,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천정환은 대중을 “그저 ‘군중’이거나 ‘의명의 타자’가 아니라 지향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대중의 존재성은 다른 주체성으로 융합되고 전화”하며, “계급과 민족(국민)이라는 근대의 가장 중요한 집합적 주체성이 근거하는 자리가 대중이다”라고 보았다(천정환, 2008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1)」 『상허학보: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깊은샘, 180~181쪽).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⁵⁾ 그러나 『동아일보』 기사제목에 관한 양적 분석이 중심이 되었고 '대중' 개념만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어서 자료검토의 대상을 확장하고 '대중'에 초점을 둔 좀 더 심화된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논의 지형 속에서 본 논문은 『개벽』, 『별건곤』, 『삼천리』 등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주요 잡지의 '대중' 용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대중'에 관한 지식인의 인식과 표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유럽 개념사 연구방법론의 한국적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대상 및 접근방법 논의, 시기구분 등을 전개한다. 제2장에서는 주요 시기별 사회변동 상황을 '대중' 개념과 긴밀하게 연동시켜 살펴본다.

1. '대중' 개념의 현황과 접근방법

1) '대중' 개념의 용례 현황

본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개벽』(1920~1926), 『별건곤』(1926~1934), 『삼천리』(1929~1942)이다. 식민지기에 발행된 여러 종의 신문과 잡지, 단행본 자료 중에서 이렇게 세 종의 잡지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료적 대표성과 관련한 것으로, 단행본보다는 신문과 잡지가 식민지기의 시기별 변동상황을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동아일보』가 위의 잡지보다 더 적당하지만 『동아일보』 기사 제목의 '대중' 용례는 최근 분석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잡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래 발행되고 대중적 영향력도

5) 허수, 2010 앞의 논문.

켰던 세 잡지를 선택했다. 둘째, 자료적 접근성과 관련한 것으로, 세 잡지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훈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기사 내용이 검색 가능하다. 개념사적 접근법에서는 개념의 빈도수, 인접 단어와의 관계 및 문장 내 위치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방대한 기사 내용에 대한 검색작업이 가능한 상황은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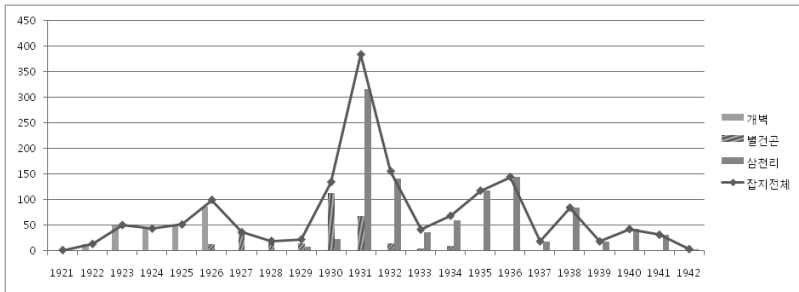
반면에 주의할 점도 있다. 『동아일보』와 달리 위의 세 잡지는 발행주체나 잡지의 성격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각 잡지에서 산출된 ‘대중’ 개념의 통계결과 등이 갖는 의미를 서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잡지 자료가 갖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유의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 내용과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훈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세 종류의 잡지를 대상으로 “대중 or 大衆”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528건의 기사를 얻는다.⁶⁾ 각 기사의 내용 중 ‘대중’이나 ‘대중’이 들어간 어절 및 단어를 용례로 추출하면 총 199종이 나오며, 각 용례는 2회 이상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용례의 빈도수를 합산하면 모두 1,555회가 된다. 이 기사 및 빈도수는 국외소식을 주로 다룬 기사와 1930년대에 복간된 『개벽』 기사를 제외한 수치이다.

6)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의 ‘훈국사데이터베이스’ 화면에서 ‘디렉토리 검색’의 ‘형태별’ 중 ‘연속간행물’을 클릭하고 다시 ‘한국근현대잡지자료’를 선택한 뒤 검색어를 입력하면 된다. 이 곳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db.history.go.kr/front/dirservice/dirFrameSet.jsp?PREC_ID=8547&pUrl=%2Ffront%2Fdirservice%2Fcommon%2FlistLargeMain.jsp&pCODE=&pType=

〈도표 1〉 주요 잡지 속 ‘대중’ 개념 용례의 빈도수 동향(전체, 잡지별)



각 용례의 면면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며 먼저 빈도수 전체 동향을 살펴보면 〈도표 1〉과 같다. 〈도표 1〉은 ‘대중’ 용례의 빈도수를 연도별로 집계했고, 각 연도별 수치를 잡지별로 구분한 것이다. 전체 동향을 보면 1931년의 빈도수가 가장 높다. 1929년에서 1934년까지의 전체 빈도수(꺾은 선 그래프)는 『별건군』과 『삼천리』의 빈도수가 합산된 결과이다. 그런 데 수치가 큰 쪽의 값만 취해도 1931년의 빈도수 결과는 변함없이 전체 기간 중 최대이다. 각 연도별 빈도수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중’ 개념의 구체적인 용례와 용례별 빈도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대중’의 용례 199종의 빈도수를 각각 연도별로 합산해서 그 추이를 파악한 것이 〈부표 1〉의 ‘용례동향표’이다. 〈부표 1〉의 용례는 형태별,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분석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자료 활용에서 유형별로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필요하다.

첫째, 용례는 형태에 따라 크게 ‘단독형’, ‘수식어 전치형’, ‘복합명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형’은 ‘대중’ 및 ‘대중적’, ‘대중화’의 세 용례로서, 여기서 ‘대중’ 개념은 문장 내 다른 단어와의 의미연관이 가장 약하며 유동적이라서 그 자체로 의미 파악이 어렵다. 이 유형은 3종에 불과하지만 빈도수는 895개로 전체 1,555개 빈도수의 57.6%이다. ‘수식어 전치형’(修飾

語 前置型)은 ‘○○대중’처럼 ‘대중’ 개념이 자신을 꾸며주는 단어 뒤에 오는 유형이다. 124종에 빈도수 414개로 전체의 26.6%이다. 이 유형의 경우, ‘1,400만 대중’이나 ‘식민지 대중’처럼 규모나 지역을 나타내는 용례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 연관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경우는 63종에 빈도수는 111개이다. 그러나 ‘계급대중’, ‘노농대중’, ‘관객대중’ 등은 그 자체로 용례의 대체적인 의미연관이나 성격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61종에 빈도수 303개이다. ‘복합명사형’은 ‘대중○○’처럼 ‘대중’ 개념이 뒤에 인접한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복합명사로 사용되는 유형이다. 이 경우는 ‘대중운동’, ‘대중소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용례 그 자체만으로 대체적인 의미연관을 파악할 수 있다. 72종에 빈도수는 246개로 전체의 15.8%이다.

이처럼 ‘대중’ 개념의 용례를 형태면에서 볼 때 ‘단독형 - 수식어 전치형 - 복합명사형’으로 갈수록 빈도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용례의 의미 연관 파악은 용이하다. 199종의 용례가 가진 의미를 파악해서 대체적인 전체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의미연관 파악이 용이한 ‘복합명사형’ 전체와 ‘수식어 전치형’의 일부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양자를 합하면 133종에 빈도수 549개로 전체 빈도수의 35.3%이다. 이 양자를 ‘가시적 의미군(可視的 意味群)’이라 부르겠다. 이에 대비되는 범주, 즉 ‘수식어 전치형’ 중 ‘규모·지역’과 결합된 용례 및 ‘단독형’ 용례는 ‘비가시적 의미군(非可視的 意味群)’이라 부른다. ‘가시적 의미군’의 비중은 전체의 1/3 남짓하지만, 이것은 전체의 의미동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표본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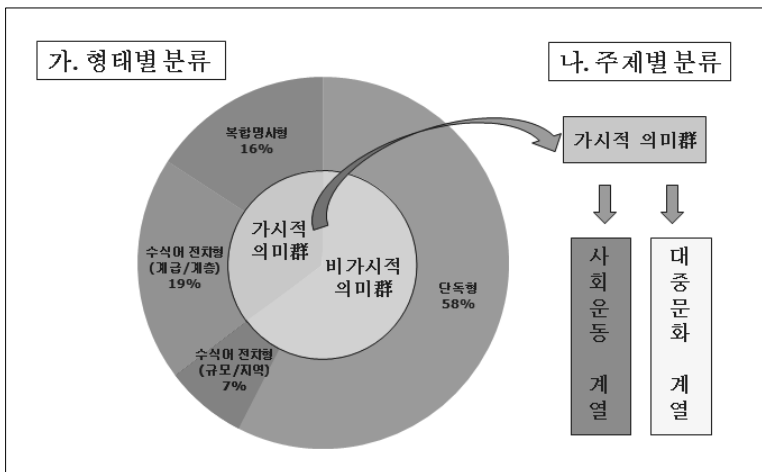
둘째, ‘가시적 의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속하는 용례를 주제별로 나누면 크게 ‘사회운동’ 계열과 ‘대중문화’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⁷⁾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분은 다양한 용례를 범주화하기 위한 ‘조작적’ 분류이지만,

7) 본문에서 언급한 형태별, 주제별 분류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선행연구 동향이나 실제 용례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개별 용례에서 두 계열에 포함되기 어려운 의미가 있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2) '대중' 용례의 두 흐름: 표면과 심층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중' 개념의 용례 현황 및 구분을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서술의 초점을 맞춘다. 첫째, 〈부표 1〉에 망라된 용례의 동태적 양상 중에 '가시적 의미군'에 속하는 용례, 특히 그 중에서도 빈도수가 10회 이상인 용례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속하는 용례를 모은 것이 〈도표 2〉이다.



〈도표 2〉 ‘가시적 의미군’ 중 10회 이상 빈도수를 가진 용례의 빈도수 동향

‘사회운동’ 계열																					
용례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합계	비중
무산대중	23	13	9	18		1		11	6			1								82	27.5
노농대중				2					33	3							1			39	13.1
대중운동	1	3	3	6				2	15	4										34	11.4
농민대중								3	3	4			1	2	1		2			16	5.4
근로대중							1	2	1	5	1									10	3.4
대중조직								6	4											10	3.4
합계	24	23	13	29	0	2	1	30	101	35	5	5	5	5	2	13	3	1	0	298	100.0

‘대중문화’ 계열																					
용례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합계	비중
대중소설												12		22		1			2	37	24.8
대중문학											1		1	5				5		12	8.1
대중공론								6	1	3			1		1					12	8.1
합계	0	0	0	2	3	0	3	12	10	10	11	19	8	44	2	3	0	16	6	149	100.0

비고 : ① 1921년·1922년 및 1942년은 빈도수가 0이므로 표시하지 않았다.

② 계열별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결과임.

③ 합계는 10회 미만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용례별 비중은 계열별 전체에서의 비중.

④ 짙은 색을 띤 칸은 ‘사회운동’ 계열, 진한 테두리를 한 칸은 ‘대중문화’ 계열, 연한 색을 띤 칸은 두 계열의 혼재를 표시했음.

〈도표 2〉는 높은 빈도수를 가진 용례를 '사회운동' 계열과 '대중문화' 계열로 각각 구분했다. '사회운동' 계열에서는 '무산대중'(82회), '노농대중'(39회), '대중운동'(34회) 순으로 빈도수가 높고, '대중문화' 계열은 '대중소설'(37회), '대중문학'(12회), '대중공론'(12회) 순이다. 〈도표 2〉에서 '사회운동' 계열에 속하는 6개의 용례는 이 계열 전체 개수 59개의 10% 수준이지만, 빈도수에서는 계열 전체의 64%를 넘는다. '대중문화' 계열에 속하는 3개의 용례는, 개수에서는 전체 47개의 6.4%에 불과하지만 빈도수에서는 계열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그러므로 이 표에서 제시된 9개의 용례가 '가시적 의미군' 전체의 빈도수 변동, 나아가 '대중' 개념 용례의 전체 빈도수 변동을 주도하는 용례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운동' 계열에서는 1931년의 빈도수 합계가 101회로 가장 높다. '대중문화' 계열의 경우 1936년의 빈도수 합계가 44회로 가장 높다. 이런 결과는 〈도표 1〉의 전체 빈도수 동향과도 호응을 이룬다. 나아가 전체 빈도수 변동에서 1931년은 '사회운동' 계열이, 1936년은 '대중문화' 계열이 빈도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밀고 나가서 중요 시기에 빈도수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 용례를 찾아낼 수 있다. 이 핵심 용례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1931년에는 '노농대중'이 33회, 1936년에는 '대중소설'이 22회라서 일단 주목대상이 된다. 그런데 잡지 기사의 경우 1개의 기사에 특정 용례가 쏠려서 사용된다면 그 빈도수가 갖는 일반성·대표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 뒤 연관이 없이 동떨어진 기사가 실리거나 아주 예외적인 투고문에서 나온 높은 빈도수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핵심 용례가 되기 위해서는 '연도별 빈도수' 이외에도 '연도별 기사수'도 많고, '기사 1건당 빈도수'도 높아서 그 용례가 당해 연도의 여러 글에서 골고루 나와야 한다. 이런 조건에 맞는 용례를 찾기 위해 〈도표 2〉에 나온 용례의 기사당 빈도수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

으로 기사 1건당 특정 용례의 빈도수를 산출하면 <도표 3>과 같다.

<도표 3> '〈도표 2〉의 용례를 가진 기사 수(상) 및 기사 1건당 빈도수의 연도별 평균(하)

대중용례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무산대중	6	5	5	9		1		6	6			1							
노동대중				1					10	3							1		
대중운동	1	2	3	2				1	9	3									
농민대중								3	2	4			1	1	1		1		
근로대중							1	2	1	3	1								
대중조직								1	4										
대중소설												2		3		1			2
대중문학											1		1	1				2	
대중공론								3	1	2			1		1				

대중용례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무산대중	3.83	2.60	1.80	2.00	-	1.00	-	1.83	1.00	-	-	1.00	-	-	-	-	-	-	-
노동대중	-	-	-	2.00	-	-	-	-	3.30	1.00	-	-	-	-	-	-	1.00	-	-
대중운동	1.00	1.50	1.00	3.00	-	-	-	2.00	1.67	1.33	-	-	-	-	-	-	-	-	-
농민대중	-	-	-	-	-	-	-	1.00	1.50	1.00	-	-	1.00	2.00	1.00	-	2.00	-	-
근로대중	-	-	-	-	-	-	1.00	1.00	1.00	1.67	1.00	-	-	-	-	-	-	-	-
대중조직	-	-	-	-	-	-	-	6.00	1.00	-	-	-	-	-	-	-	-	-	-
대중소설	-	-	-	-	-	-	-	-	-	-	-	6.00	-	7.33	-	1.00	-	-	1.00
대중문학	-	-	-	-	-	-	-	-	-	-	1.00	-	1.00	5.00	-	-	-	2.50	-
대중공론	-	-	-	-	-	-	-	2.00	1.00	1.50	-	-	1.00	-	1.00	-	-	-	-

비고 : 1921·1922년 및 1942년 빈도수가 0이므로 표시하지 않았다.

<도표 3>의 '상'에서 각 용례를 포함하는 기사의 숫자 중 3건 이상의 칸에는 진하게 표시했다. 예를 들어 '무산대중' 용례의 경우, <도표 3>과 <도표 2>의 수치를 결부시키 보면 1923년에는 이 용례가 6개의 기사에서 모두 합해 23회 나왔으므로, 기사 1건당 평균 빈도수는 3.83회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무산대중' 용례는 1923년에 빈도수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 용례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특정 연도의 기사수는 많지만 기사 1건당 빈도수가 낮거나, 그 반대로 기사 1건당 빈도수는 매우 높지만 그 해의 기사수가 아주 적으면 핵심 용례가 되기 어렵다. 전자의 경

우 '무산대중' 용례에서 1926년이나 1931년의 경우 각각 기사수가 9회와 6회로 많은 편이지만, 건당 빈도수는 각각 2.0, 1.0으로 낮다. 후자의 경우에는 1930년의 '대중조직' 용례가 해당하는데, 건당 빈도수는 6.0으로 매우 높지만, 이 빈도수는 1건의 기사에서 모두 나온 것이라 일반적 경향을 대표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연도별 기사수 3회 이상, 건당 빈도수 3.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용례와 시점을 찾기 위해, <도표 3>의 '상'과 '하' 표에서 색칠한 구역이 겹치는 칸에 주목하면, 1923년의 '무산대중', 1931년의 '노농대중', 1936년의 '대중소설'을 얻게 된다. 해당 연도별 이 용례가 가진 의미나 상호 관련성 등은 본 논문의 제2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이 세 용례가 1923년, 1931년, 1936년의 빈도수 증가를 주도하는 핵심 용례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기로 하자.

두 번째로 검토할 사항은 이상과 같은 핵심 용례와 정반대 양상을 보이는 용례들의 동향과 그것이 본 논문의 분석에서 갖는 의미이다. <도표 2>에서 1931년에 빈도수 합계가 101회로 폭증을 보이는 이유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협동전선인 신간회(新幹會)를 해소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1920년대 초부터 '대중' 개념 용례에서 사회운동적 성격이 짙게 반영되고 있고, 이것은 1920년대의 시대상황이나 식민지적 조건에 의해 더 두드러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보편적인 현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1931년 무렵 신간회 해소라는 '사건적 차원'에 의해 '대중' 개념의 용례 빈도수 동향이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신간회 해소 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다. 따라서 그 논의에는 사회주의적 계급담론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조금 전에 살펴본 '노농대중' 등의 용례에는 사회주의적 담론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신간회 해소 논의 등과 같은 '사건적 차원'을 제거하면 어떠한 빈도수 동향

을 보일까 궁금하다. 이런 탐구는 ‘대중’ 개념의 용례를 핵심 용례가 주도하는 ‘표면’적 차원의 변동과 함께, 그렇지 않은 용례가 보이는 ‘심층’적 차원의 변동을 균형감 있게 고찰하는 의의를 가진다. 이런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용례로 <부표 1> 가운데 ‘비가시적 의미군’의 일부, 즉 ‘수식어 전치형’ 중 ‘규모·지역’과 결합된 용례가 적당하다.⁸⁾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특정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 용례, 즉 ‘일반대중’이나 ‘인민대중’, ‘사회대중’ 등 ‘전칭(全稱) 용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전칭 용례’의 범위에는, 지역이나 규모를 나타내는 수식어와 결합되긴 하지만 그 지역이나 규모가 사실상 조선 민족을 가리키는 용례, 예컨대 ‘조선대중’, ‘식민지 대중’, ‘2천만 대중’ 등도 포함시킨다. 심층의 흐름을 살펴보는 자료로 ‘전칭 용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시 표면적 용례 변화를 주도한 계급담론의 범위 바깥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표 4>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16개의 용례를 모아서 빈도수 동향과 기사 1건당 빈도수의 연도별 평균을 살펴본 것이다.

<도표 4>를 보면, 실제로 연도별 변동에서 이 ‘전칭 용례’는 ‘핵심 용례’와는 달리 연도별 쓸림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체 시기에 분포해 있다. 또한 쓸림이 있더라도 기사당 빈도수의 연도별 평균은 하향 평준화 되어 있거나, 기사 건수가 낮다. 이런 양상은 ‘핵심 용례’의 경우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도표 4>의 ‘빈도수 동향’(상)을 <도표 2>의 빈도수 동향과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 ‘대중문화’ 계열의 기사는, 빈도수가 적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27년에 분포해 있고, 더 중요하게는 1938년 이후 전시 통제정책이 반영된 용례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두 표에서 드러나는 차이에 유의해서 판단할 때, ‘핵심 용례’를 비롯하여 빈도수가 높은 용례가 해당 잡지 주체들이나 식민지 지식인의 의식적 실천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

8) <부표 1>에서 ‘형태’는 ‘수식’으로, ‘주체’는 ‘기타’로 표시된 용례(110~194번)가 여기에 해당한다.

〈도표 4〉 ‘전칭 용례’의 빈도수 동행(상) 및 기사 1건당 빈도수의 연도별 평균(하)

대중·유례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합계
일반대중						1				1	1	1	3	2	8	8	1	6	1	3	4		40
조선대중					4		2			2	1	1			1	1	1	1					13
식민지대중										1	10												11
조선의대중				1	3	1				3	1					1							10
사회대중										1					1	4							6
1,400만대중				2																			2
1,700여만대중		2																					2
2천만대중						1														1			2
인민대중											1									1			2
1천 4백만대중				1																			1
2,500만대중						1																	1
민족대중											1												1
반도2,300만대중																		1					1
이천만배달대중						1																	1
조선사람대중																1							1
조선인대중															1								1
연도별합계	0	2	0	0	4	7	5	2	0	8	15	2	3	2	11	15	1	8	1	5	4	0	95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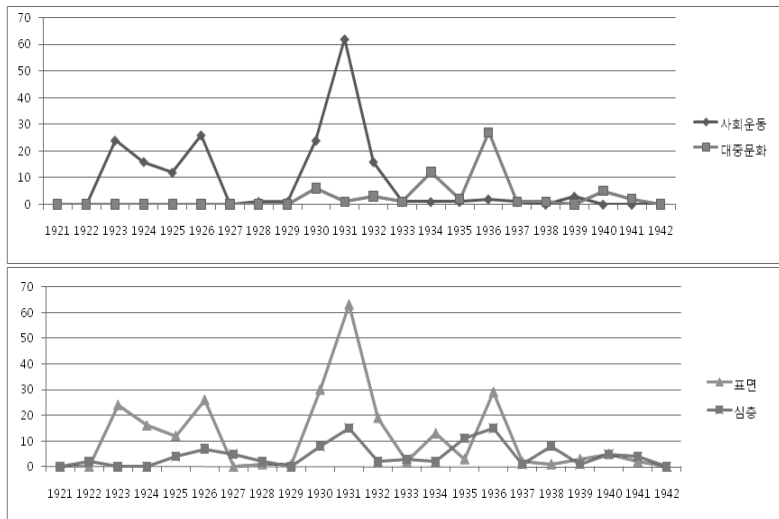
대중																			
2,500만 대중	-	-	-	-	-	1.00	-	-	-	-	-	-	-	-	-	-	-	-	-
민족대중	-	-	-	-	-	-	-	-	-	1.00	-	-	-	-	-	-	-	-	-
반도230만 대중	-	-	-	-	-	-	-	-	-	-	-	-	-	-	1.00	-	-	-	-
이천만 배당대중	-	-	-	-	-	1.00	-	-	-	-	-	-	-	-	-	-	-	-	-
조선사람 대중	-	-	-	-	-	-	-	-	-	-	-	-	-	1.00	-	-	-	-	-
조선인 대중	-	-	-	-	-	-	-	-	-	-	-	-	1.00	-	-	-	-	-	-

비고 : ① 빈도수 동향(상)의 '연도별 합계'는 이 표에 있는 용례의 빈도수만을 집계한 것임.

② 사선이 표시된 칸은 전시 정책과 관계 깊은 용례. 그 이외의 칸 표시는 <도표 2>의 ④와 동일함.

〈도표 5〉 ‘대중’ 용례의 표면과 심층 :

표면의 두 계열 비교(상)와 표면/심층의 비교(하)



한다면, ‘전칭 용례’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수동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이 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서 나타내면 〈도표 5〉와 같다.

〈도표 5〉의 ‘상’은 〈도표 2〉에 나온 9개 용례를 두 계열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사회운동’ 계열의 용례는 1920년대 전중반과 1931년에 높은 증

가를 보이고,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는 1934년과 1936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의 그래프는 '상'의 두 계열을 합하여 '표면'이라는 이름으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도표 4>에 제시된 16개 '전칭용례'의 빈도수 합계를 '심층'으로 표시했다. '표면'의 변동은 연도별로 증감폭이 큰 반면 '심층'의 변동은 '표면'의 동향과 연동하면서도 증감폭이 훨씬 완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층'의 변동 중에서 1938년이 소폭 상승한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통제정책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시기구분과 절단면

이 절에서는 첫째, 제1절과 제2절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1920·30년대 '대중' 개념의 용례 변동을 반영한 시기구분을 시도하고, 둘째, 각 시기별로 가장 중요한 연도를 선택해서 그 연도의 의미를 보여주는 단면을 고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시기구분 문제를 논의하자. 주지하듯이 역사 인식에서 시기구분의 필요성은 특정 시간대의 유동적이고 연속적인 흐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절함으로써 각 시기별 특징과 전후 시기와의 연속/단절 관계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과 연결시키면, 이러한 시기구분에는 <도표 1>에 드러난 '대중' 개념 용례의 전체 동향을 염두에 두면서도, <도표 5>에 드러난 용례의 표면과 심층의 관계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체 동향과 관련해서는 제1절에서 미루어 둔 문제, 즉 잡지 간 성격의 차이를 보완하는 문제부터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표 1>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은 두 군데이다. 하나는, 1930년과 1931년의 잡지별 빈도수 동향이 보이는 상반된 경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1926년부터 1929년까지의 빈도수 감소 추

세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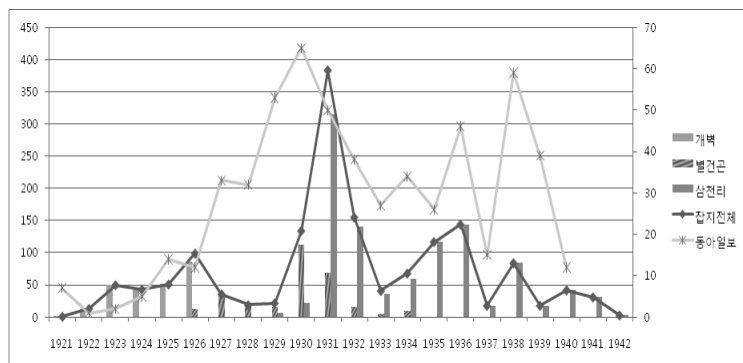
전자부터 살펴보자. 1930년에는 『별건곤』의 빈도수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체 빈도수 상승을 주도한다. 1931년에는 『삼천리』의 빈도수가 폭증하면서 전체 빈도수 상승을 주도하는 데 반해, 『별건곤』의 빈도수는 오히려 감소한다. 1931년의 빈도수 상승이 대부분 신간회 해소 논의에 따른 것이라면 두 잡지의 빈도수 역전현상은 신간회 해소 논의가 『삼천리』에만 많이 반영되었고 『별건곤』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1931년의 빈도수는 잡지 중에서도 특정 잡지의 국소적 상황을 과장해서 드러내는 부적절한 통계자료가 될 것이다. 당시 『삼천리』의 발행인인 김동환이 “1930~1931년까지 신간회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혐의를 더욱 가중시킨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우려와는 정반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31년의 『삼천리』 빈도수는 당시 신간회 해소 논의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조선 지식인의 일반적 동향을 잘 반영한 것이다. 오히려 이 시기 『별건곤』의 빈도수를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별건곤』의 경우, 신간회 해소 논의 중 ‘대중’ 개념의 용례는 1930년에 많이 나오지만 1931년 3월 무렵은 용례가 급격히 감소한다. 그 결과가 <도표 1>에 있는 1931년의 별건곤 그래프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동년 3월은 『별건곤』을 발행하던 개벽사가 『혜성』 잡지를 별도로 창간한 달이다. 『혜성』 창간호 기사에는 신간회 해소 관련 기사가 많이 수록되었고, 이런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1931년 『별건곤』 빈도수의 감소는 『혜성』 창간과 함께 『별건곤』이 좀 더 대중적인 ‘5전 잡지’로 변모해 가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1931년에 신간회 해소 논의를 반영해서 높은 빈도수를 보였던 『삼천리』의 자료는 당시 지식층 일반의 관심을 잘 반영한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첫 번째 의문이 『별건곤』과 『삼천리』의 매체적 차이와 관련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 의문은 『별건곤』과 『개벽』의 매체적 차이와 관련한 문제이다.

『개벽』은 계몽적 종합월간지로 창간되었으나, 『별건곤』은 애초 ‘대중적 취미 독물(讀物)’로 발간되었다. 그러므로 『개벽』이 강제 폐간된 해인 1926년 이후 ‘대중’ 개념의 관련 용례 빈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개벽』 폐간이라는 특정 매체의 사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시대적 쓰임을 반영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는 『동아일보』 기사제목의 ‘대중’ 용례에 관한 분석결과물이 유용하다.

〈도표 6〉 주요 잡지와 『동아일보』에 나타난 ‘대중’ 용례의 동향 비교



〈도표 6〉은 〈도표 1〉의 결과를 『동아일보』의 ‘대중’ 개념 관련 용례 빈도수 변동과 더욱 잘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의 보조축(오른쪽 눈금)을 『동아일보』 빈도수 기준에 맞추었다.⁹⁾ 잡지에 비하여 성격 변동이나 발간 주체의 교체 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동아일보』에서는 1920년대 후반의 ‘대중’ 개념 용례 빈도수가 별다른 굴곡없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구간 이외의 시기를 보면 『동아일보』와 잡지의 변동 추세는 진폭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1920년대

9) 『동아일보』 기사제목에 나타나는 ‘대중’ 개념 관련 용례 및 그 빈도수 동향은 다음 자료를 참조. 허수, 2010 앞의 논문, 140~143쪽

후반, 잡지 자료의 빈도수 동향이 보이는 급격한 감소추세는 매체의 성격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실제 상황은 ‘대중’ 개념의 용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도표 1〉의 전체 동향이 가진 이상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시기구분을 해 보자. 각 용례별로 〈도표 2〉와 〈도표 4〉에 표시된 계열 특성, 즉 ‘사회운동’ 계열과 ‘대중문화’ 계열의 시기별 분포를 보면, ‘사회운동’ 계열은 1923년에 다수 출현해서 1931년에 정점을 이룬 뒤 1933년 무렵까지 나타나고, ‘대중문화’ 계열은 1926년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936년에 정점을 이룬 뒤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빈도수의 두 계열별 변동이 각각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920·30년대 시기는 두 계열을 기준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20년부터 1925년까지로 ‘대중’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사회운동’ 계열의 용례가 대부분이다. 제2기는 1926년부터 1933년까지로, ‘사회운동’ 계열의 용례가 점증해서 정점에 달한 뒤 거의 종료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서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가 등장해서 점증해 가는 시기이다. 두 계열의 용례가 혼재, 병존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제3기는 1934년부터 1942년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주로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가 더욱 증가해서 정점에 달한다. 단 1938년 이후 전시통제정책과 관련한 용례도 나타나지만, 별도의 시기구분을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3기에 포함시켜 함께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기별 변동을 동태적으로 고찰하면서도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의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 연도에 대한 공식적 관찰을 병행하고자 한다. 2절에서 우리는 ‘대중’ 용례의 표면적 흐름을 주도한 핵심 용례로, 1923년의 ‘무산대중’, 1931년의 ‘노농대중’, 1936년의 ‘대중소설’을 추출한 바 있다. 또한 심층적 흐름 가운데 1938년의 전시 통제와 관련한 약간의 상승에 주목한 바 있다. 따라서 공식적 관찰 대상으로 제1기 중 1923년, 제2기 중 1931년, 제3기 중 1936년과 1938년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 네 개 연도의 의미구조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관찰하면 좋을까.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개념사 연구자의 하나인 롤프 라이하르트가 발전시킨 '의미장' 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네 개 연도의 용례가 가진 절단면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¹⁰⁾ 여기서 '의미장' 이론의 방법론적 의미나 작성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언급할 여유는 없다. 다만, 본 논문의 논의에서 주요 연도별 '의미장' 분석 결과가 갖는 분석적 의미를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중' 개념의 용례에 관한 자료는 주로 양적 빈도수에 기반을 둔 것이다. 특정 용례가 특정 시기에 어떤 빈도수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일반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그런데 그러한 빈도수 추세만으로는 '대중' 개념이나 이와 관련한 특정 용례가 얼마나 발화자나 필자에게 수용되었는가를 측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대중' 개념의 '의미장'은 이런 수용의 측면을 살펴보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의미장' 작성 시에는 단순히 반복되는 용례를 모두 빈도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 개념에 집중해서 문장 중 이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계열의 장'), 그 개념을 설명하는 술어('통합의 장'),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용어('반의어'), 이 개념이 발화되는 문맥 혹은 원인('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질적 고찰이다. 의미장 분석은 맨 처음에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 '대중' 개념 용례의 세 유형 중 용이한 파악이 힘들어 경험적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범주인 '단독형'을, 비록 특정 연도에 국한한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작성한 네 개 연도의 의미장이 <부표 2> ~ <부표 5>이다. 이 의미장은 2장에서 각 시기별 동향을 서술할 때, '대중' 관련 용례의 표면과 심층 등 전체적인 동향이 반영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¹¹⁾

10) 롤프 라이하르트 의미장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김학이, 2009 「롤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박근갑 외 지음,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小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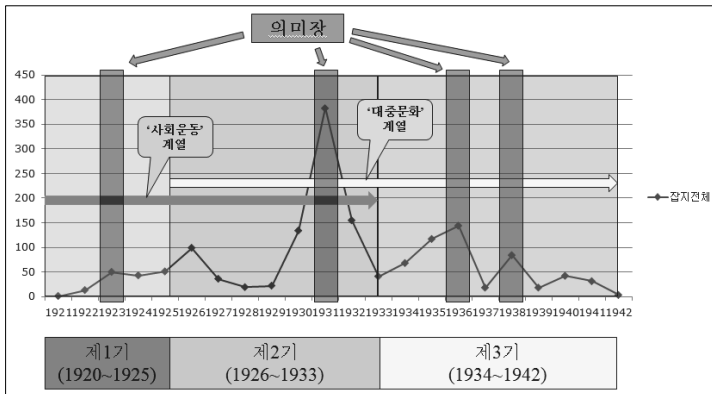
2. '대중' 개념의 시기별 변동

1) 사회주의 수용과 '대중'의 발견 (1920~1925)

이 시기의 전체 빈도수 상승을 주도한 핵심용례는 1923년의 '무산대중'이다. <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산대중' 용례는 등장 첫해부터 23회나 사용되었다. 1924년과 1925년에는 각각 13회, 9회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이다. 이 시기의 다른 용례는 '무산대중'의 빈도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전 시기를 통틀어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대중'의 단독용례 조차도 1923년에는 '무산대중'보다 빈도수가 낮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용례 파악은 '무산대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 '무산대중'을 중심으로 이 시기를 파악할 때 첫째, '무산대중'과 '민중'의 관계, 둘째, '무산대중'과 '대중'의 관계가 중요하다.

먼저 '무산대중'과 '민중'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무산대중'이라는 용어에 반영된 인식을 보면, 이 용어에서 '무산(無産)'은 '무산계급'에서 유래한 것

11) 이 절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으로서, 당시 '무산계급'은 '재산이 없는 계급'으로 이해되고 있었다.¹²⁾ 또한 1925년 무렵의 자료에서 '무산자'는 “빈민, 노동자, 소작인 등을 총대표한 말”로 설명되었다.¹³⁾ 이런 인식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사상은 이미 1910년대 연해주나 중국, 그리고 일본을 통해 수용되고 있었으며, 1920년대 초반은 맑스주의가 “‘운동’과 ‘사상’의 두 측면에서 조선 사회주의의 현실적 주류로 등장”한 시기였다.¹⁴⁾ 기존의 사회주의 운동사·사상사 방면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상은 1922년 초의 ‘김윤식 사회장 찬반논의’와 1923년의 ‘물산장려운동’을 거치면서 식민지 조선의 식자층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또한 『개벽』에 관한 최근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이러한 시대상황이 『개벽』에도 영향을 끼쳐 1923년 무렵부터 『개벽』에 사회주의적 논설이 본격적으로 실리기 시작하며, 기본 논조에도 사회주의적 계급담론의 영향이 강하게 투영되기 시작했다.¹⁵⁾

12) 崔綠東 편, 1922 『現代新語釋義』, 文昌社 중 ‘무산계급’ 항목. 또한 이 자료의 ‘階級戰’ 항목에서는 “有産階級, 無産階級 其他 階級이 異 同 者가 互相對峙 爭 鬭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13) “無産者. 卽 「나는 돈 없는 놈이요」하는 말이니 貴族, 資本家, 地主 等に 對한 貧民, 勞働者 小作人 等を 總代表한 말이니 亦 主義者間에 만히 使用한 말이다.” (『필자미상』, 1925.3 「最近朝鮮에 流行하는 新術語」 『개벽』 57, 69쪽).

14) 박종린, 2006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35쪽. 1922년의 ‘김윤식 사회장’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1923년 ‘물산장려운동’에 관한 논쟁을 거치면서 이전의 다양한 사회주의적 사조는 맑스주의로 ‘전일화’되어 갔고, 맑스주의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박종린, 앞의 논문, 42~84쪽 참조).

15) 『개벽』 논조에 대한 사회주의적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조할만하다. 최수일, 2008 『『개벽』 연구』, 소명출판; 김정인,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임경석·차혜영 외 지음, 2007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許 洙, 2008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62

그러므로 1923년 『개벽』에서 ‘무산대중’의 급증은 사회주의 사상의 국내 수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23년에 ‘무산대중’의 빈도수 증가를 추동한 세 기사의 필자 중 한 명인 주종건은 1922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1923년 7월 귀국해서 8월에 ‘민중사’ 결성에 참여한 인물이다.¹⁶⁾ 또 한명의 필자인 이철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 한명은 필자미상이다. 그러나 세 기사의 작성자가 사회주의 자이건 아니건, 세 기사 모두에서 ‘무산대중’은 사유재산 제도의 문제점이 나¹⁷⁾ 사회개조의 필요성,¹⁸⁾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¹⁹⁾ 등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회운동’적 의미를 강하게 반영한 용례이다. ‘무산대중’은 어떤 글에서는 ‘빈한자(貧寒者)’나 ‘불평하는 자’, ‘무지한 인민’, ‘노예적 퇴굴성(退屈性)을 가진 자’ 등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되면서도,²⁰⁾ 또 다른 글에서는 ‘개조의 신기운을 일으키는 대다수의 힘을 가진 자’, ‘정의인도의 힘을 가진 자’ 등 긍정적 이미지로 언급되기도 했다.²¹⁾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자의 글에서 보이는 ‘무산대중’과 ‘민중’의 관계이

16)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471~472쪽; 주종건의 민중사 관련 활동에 관해서는 박종린의 다음 연구를 참조. 박종린, 앞의 논문, 85~96쪽

17) (필자미상), 1923.6 「將來할 新社會와 因襲의 宗教 及 道德의 價値 如何」 『개벽』 36. ‘무산대중’은 모두 7회 나온다.

18) 李喆, 1923.7 「無宗教라야 有宗教」 『개벽』 37. ‘무산대중’은 모두 9회 나온다.

19) 朱鍾建, 1923.11 「現代經濟組織의 모순, -엇던 多少間 교양있는 失業한 熟練職工과의 대화-」 『개벽』 41. ‘무산대중’은 모두 4회 나온다.

20) (필자미상), 1923.5 「五月 一日은 엇더한 날인가」 『개벽』 35, 35쪽; (필자미상), 1923.6 「將來할 新社會와 因襲의 宗教 及 道德의 價値 如何」 『개벽』 36, 3쪽

21) “覺悟한 現代 人類는 第4階級이라 하는 世界 無產大衆의 大多數의 力에 依하여 改造의 新氣運을 일너 노코져 하는 것이라.”(『개벽』 37, 31쪽); “正義人道의 大膽의 力은 少數 幸福者에게 잇는 것이 안이오 多數 無產大衆의 不平한 精神 內容에 잠겨 잇습.”(『개벽』 37, 31쪽)

다. 이 시기 양자의 관계는 다음 두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 (A) 조선의 무산대중은, 거의 다 모태(母胎) 내에 있을 때부터 영양부족의 상태에 있습니다. …(중략-인용자)… 현하(現下)에 있어서는, 내외 자본계급의 고도의 착취(搾取), 그것이야말로 조선의 민중으로 하여금 『왜 좁쌀죽』을 먹지 않으면 안될, 빈곤에 빠지게 한 원인이 아닐가요?²²⁾ (밀줄강조-인용자)
- (B) 민중 : 소수 귀족계급이나 자본계급을 떠나서 절대다수의 무산대중을 지칭하는 말이니 이 역시 무산자 간에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²³⁾ (밀줄강조-인용자)

주종건이 쓴 기사인 '(A)'자료에서 '조선의 무산대중'은 '조선의 민중'과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1925년에 당시 유행어를 수록한 'B'에서 '민중'은 '절대다수의 무산대중'이라고 명확하게 언급되었다. 당시 '무산대중'은 사실상 '민중'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민중'은 3.1운동 당시부터 조선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²⁴⁾ 1920년대 전반에 '무산대중'이 '민중'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면 왜 사회주의자들은 '무산대중'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했을까.

이 시기의 『개벽』에 실린 '대중' 용례 관련 기사에서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필자는 주종건 이외에, 김기진, 정백, 김경재, 이성태 등이 있다. 이들의 글에서 '무산대중'과 '민중'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도표 7>을 작성했다.

22) 朱鍾建, 「現代經濟組織의 모순, -엇던 多少間 교양있는 失業한 熟練職工과의 대화-」, 27~28쪽

23) (필자미상), 1925.3 「最近朝鮮에 流行하는 新術語」 『개벽』 57, 69쪽

24) 허수, 2009 「民衆 개념 속의 식민지 경험」 『경계에 선 민중, 새로운 민중사를 향하여』, 역사문제연구소 정기심포지엄 자료집(2009.12.5,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62~67쪽

<도표 7> 1920년대 전반 『개벽』에 실린 사회주의자의 글에 나타난 ‘대중’과 ‘민중’

호수	날짜	필자	기사제목	‘대중’ 관련 용례	무산대중	대중	민중
제39호	1923-09-01	朱鍾建	국제무산청년運動과 朝鮮	무산대중; 혁명적 대중의 행동; 대중의 혁명적 교양; 대중운동; 대중적 무산청년운동(2); 대중	1	5	0
제41호	1923-11-01	朱鍾建	現代經濟組織의 모순, -엇던 多少間 교양잇는 失業한 熟練職工과의 대화-	우리의 대중; 농촌의 대중; 무산대중(4); 대중	4	3	1
제44호	1924-02-01	八峯山人 (김기진)	今日の 文學・明日의 文學	대중(2); 무산대중(6)	6	2	1
제45호	1924-03-01	木覓山人 (정백)	時評	대중운동의 진행	0	0	3
제54호	1924-12-01	靜觀生 (이성태)	朝鮮學生의 社會思想的 聯合運動과 日本學生의 社會科學的 聯合運動	대중적(2); 대중(2); 학생대중(2)	0	4	0
제57호	1925-03-01	金璟載	社會運動者가 본 社會運動	무산대중	2	0	6
제58호	1925-04-01	朱鍾建	現代의 教育和 民衆, (=教育小言=)	대중의 교육; 무산대중(3); 대중(6)	3	7	4

참고: ‘대중’의 빈도수에는 ‘대중’, ‘대중적’ 등 단독형만 계산했음.

대체로 ‘무산대중’이나 ‘대중’ 등 ‘대중’ 관련 용례를 사용하는 글에서는 ‘민중’이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벽』 58호에 실린 주종건의 글에서는 ‘민중’이 4회 사용되어 ‘무산대중’의 3회보다 빈도수가 높지만, ‘대중’ 용례까지 합해서 본다면 빈도수는 ‘민중’의 두 배 이상 많이 사용되었다. 정백과 김경재의 글은 다른 사람의 글과 반대 경향을 보였는데, 여기서는 ‘무산대중’이 적게 사용되는 반면 ‘민중’이 상대적으로 다수 사용되었다. 결국 이상의 7개 글에서 ‘무산대중’을 중심으로 한 ‘대중’ 개념 관련 용례는

‘민중’ 개념의 사용과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을 1923년에 발표된 다른 글과 비교해 보자. 이 해에 ‘무산대중’ 개념을 많이 사용한 세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주종건 이외의 두 글을 쓴 필자는 사회주의자로 보기 어렵다. 이철이나 필자미상의 글은 ‘무산대중’이라는 용어로 사유재산 등을 비판하면서도, 기본 논조는 “新社會에 應할만한 新宗教 新道德”이 필요하다고 하여,²⁵⁾ 종교를 부인하는 유물사관의 입장과 명확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²⁶⁾ 그런데 필자미상의 글에서는 ‘무산대중’이 7회 사용되지만 ‘민중’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반해, 이철의 글에서는 ‘무산대중’이 9회 사용되는 가운데 ‘민중’도 11회나 함께 사용되었다. 적은 사례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비(非)사회주의자들의 글에서는 ‘무산대중’과 ‘민중’의 사용 간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이상의 분석에서 ‘무산대중’과 ‘민중’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무산대중’ 용례의 사용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고 『개벽』 주도층 등 여타 식자층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한 ‘무산대중’은 ‘민중’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그들의 글에서 ‘무산대중’의 빈도수와 ‘민중’의 빈도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사회주의자들은 기존의 ‘민중’을 ‘무산대중’으로 대체하고자 했다고 보인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계급담론을 투영시킨 ‘무산대중’을 사용함으로써, 3.1운동 당시부터 ‘민중’을 고취하던 민족주의자의 용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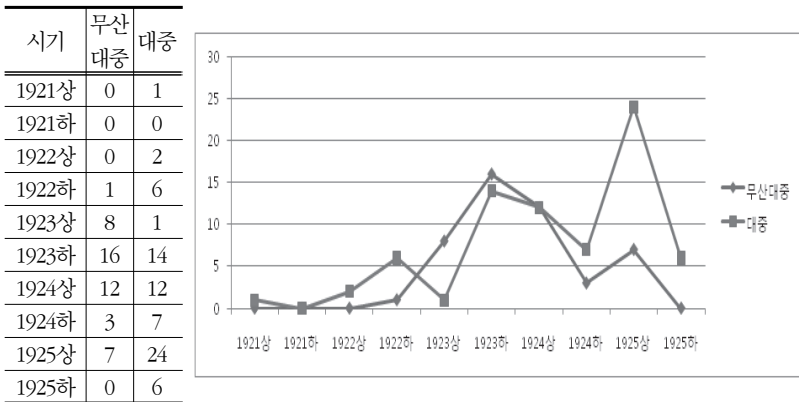
25) (필자미상), 「將來할 新社會와 因襲的 宗教 及 道德의 價値 如何」, 7쪽

26)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 초기에 계급담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신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은 오히려 천도교에 기반을 둔 『개벽』 주도층의 견해에 가깝다. “唯物史觀에 脚을 立한 社會主義者들이 神을 否認하며 宗教를 排斥하는 것은 自己의 主義인 唯物로 보아서 唯心的인 宗教를 否認할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吾人의 생각으로 말하면 … 아모리 露西亞라 할지라도 萬若 眞理의 新宗教가 있다 하면 그들이 眞理 그것까지도 排斥 斥理가 업을 터이라.”(李喆, 「無宗教라야 有宗教」, 35쪽)

하고자 한 것이다.²⁷⁾

두 번째로는 ‘무산대중’과 ‘대중’의 관계를 살펴보자. 『개벽』에서 ‘대중’ 개념은 1921년 경성 거주 정기원이라는 인물의 현상논문에서 선보였다. 그는 이 개념을 ‘희망은 대중을 고무시킨다’라는 문맥에서 사용했다.²⁸⁾ 1922년에는 『개벽』의 초대 학예부주임인 현희운(현철)이 ‘햄릿’ 번역문을 실었는데, 여기서는 ‘연극 감상을 잘 못하고 떠드는 대중’이라고 표현되었다.²⁹⁾ 그러나 1923년부터 ‘무산대중’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1920년대 전반 ‘무산대중’과 ‘대중’의 빈도수 동향을 비교하면 <도표 8>과 같다. 이 도표의 좌측 통계표는 1925년까지 ‘대중’ 개념과 관련한 용례를 포함하고

<도표 8> 1920년대 전반 ‘무산대중’과 ‘대중’의 빈도수 동향 비교



27) 이 시기 사회주의자들의 ‘민중’ 전유 노력에 대해서는 허수의 다음 글 참조. 허수, 2009 앞의 논문, 69~73쪽

28) 鄭紀源, 1921.7 「希望論, 懸賞文發表 論文 選外」 『개벽』 13, 9쪽

29) “나는 그 거침(荒)마른俳優들이 변변치 못한 默劇이나 것으로 떠드는 빛깔은 잘鑑賞도 못하는 大衆의 마음을 끌을기 爲하여 空然이 야단법석을 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참아 볼 수가 없다.”(셰익스피어(原作), 玄哲(譯述), 1922.3 「하믈레트」 『개벽』 21, (65쪽)

있는 61개 기사를 대상으로 용례를 파악해서 그 중 '무산대중'과 '대중'(여기서는 '단독형' 용례만 집계)의 빈도를 반년 간격으로 합산한 결과이다.

〈도표 8〉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1923년 상반기 '무산대중'이 급증해서 1924년 상반기까지 '대중'에 비해 빈도수가 우위에 있다가 1924년 하반기부터 '대중'의 단독형 용례가 더 증가한다. '대중' 단독형 용례는 이후 시기에 더욱 증가하게 된다. 1923년 '무산대중'의 급격한 사용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제2기 이후 '대중' 단독형의 증가율이 더 높아졌음을 고려하면, 제1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중'의 빈도수가 '무산대중'보다 높아지게 된 것은 '대중' 개념의 사용 용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923년 이전에도 일정 부분의 '대중' 용례가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밀도있는 사용이나 사회운동적 의미가 약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대중' 개념의 초기 수용은 사회주의의 영향에 따라 '사회운동'적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대중' 보다는 '무산대중'의 형태로 사용되다가 점차 '대중' 개념이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용어와 폭넓게 결합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1923년의 의미장은, '대중' 개념이 '무산개념'의 용례를 중심으로 수용되고 아직 '대중'의 단독 용례가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했던 초기 수용 상황을 잘 보여준다. 〈부표 2〉에서 '대중' 개념은 전체적으로 밀도있게 사용되지 못한 채, '조선인' 전체와 등치되어 사용되거나 '피지배계급'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대중'에 대한 속성도 경제적으로나 의식 면에서 취약한 존재로 보는 등 부정일변도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 '무산대중' 용례가 부정적 이미지 못지않게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사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2) ‘대중’을 전유하기 위한 의미투쟁 (1926~1933)

제2기는 1920년대 후반기 및 1930년대 전반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관찰의 초점을 첫째, 신간회 해소 찬반 논의가 가열된 1931년 무렵에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7년부터 1929년까지는 본 논문이 상정한 잡지 자료의 매체적 특성이 반영되어 충분한 검토 대상 시기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³⁰⁾ 1931년에는 전체적인 용례의 빈도수가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무산대중’ 용례에서 ‘노농대중’ 용례로의 중심이동 현상에 유의하고자 한다. 둘째, 제1기에 비해 ‘대중’ 용례가 더욱 증가하고 다양한 ‘대중’ 개념 관련 용례들이 등장하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부터 살펴보자. 1장에서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하여 빈도수 증가를 추동하는 핵심 용례는 ‘노농대중’이다. <도표 2>를 보면 ‘노농대중’은 그 이전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다가 1931년에 10개의 기사에서 무려 33회나 사용된다. ‘무산대중’은 이 시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18회(1926년), 11회(1930년) 등 많이 사용되었으나 정작 1931년에는 6회로 감소한다. ‘대중운동’의 용례도 1930년에는 2회 사용되다가 1931년에는 15회로 급증했고 이듬해에는 4회로 격감한다. 이러한 통계 추세를 볼 때 1931년에 신간회 해소 논의가 주요 용례의 변화, 특히 제1기부터 높은 빈도수를 보이던 ‘무산대중’의 감소, 이에 대비되는 ‘노농대중’의 급증 현상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신간회 해소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³¹⁾ 여기서

30) 다만 제1기부터 시작된 ‘대중’ 관련 용례의 사회운동적 계열이 제2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1931년에 최고조에 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1)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이균영, 이애숙의 다음 연구가 있다. 이균영, 1994 「신간회의 분열과 해소운동」 한국현대사연구회, 『근현대사강좌』 4 ; 이애숙, 1994 「세계 대공황기 사회주의진영의 전술 전환과 신간회 해소문제」 한국역사연구회, 『역

는 본 논문의 주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신간회는 국내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 합작해서 1927년 초에 발족했다. 1928년 말 신간회 지회 총수는 143개, 회원 수는 2만 명에 달했다. 1920년대 말 광주학생 사건을 비롯한 여러 민족운동, 대중운동을 지원했던 신간회는 1931년 5월 해체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의 일제 타협화 경향을 꼽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민족 내 계급 사이의 통일보다는 노동자 농민 계급의 통일을 강조”하는 세계 공산주의 진영의 방침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928년의 코민테른 제6차 대회에 바탕을 둔 ‘12월 테제’ 및 1930년 국제적색노조(프로핀테른)의 ‘9월 테제’ 등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자와 신간회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1930년 12월 부산, 평양 등 각지 지회에서는 신간회 ‘해소’를 선언하기 시작했고 1931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전국대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해소’가 결의되었다. 신간회 해체 이후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농민조합 및 노동조합 조직운동 등에 매진했으며, 전국적 범위의 민족통일적 조직은 결성되지 못했다.³²⁾

이상의 사실 중 본 논문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신간회 해소가 1930년 12월부터 지회로부터 시작되어 1931년 5월 공식적으로 해소가 결의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해소 논의가 ‘노동자 농민 계급의 통일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간 문제와 관련한 사항부터 언급하면, 실제로 제2기 기간 동안 ‘대중’ 관련 용례의 빈도수가 10회 이상인 기사는 모두 20개인데, 그 중에서 1926,7년의 세 기사를 제외한 17개 기사가 모두 1930년 11월부터 1932년

사와 현실』 11

32) 이상 신간회에 관한 개략적인 상황은 다음 글을 필자의 입장에서 요약한 것이다. 염인호, 「항일전선 통일과 민족해방운동」 한국사연구회 편, 2008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하, 지식산업사, 339~340쪽

5월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17개 기사 중에서 신간회 해소 문제와 무관한 기사는 한 개 정도이다. 이 기간 중 1개 기사당 가장 높은 빈도수는 39회이고 그 다음이 29회인데 각각은 1931년 2월, 1930년 11월로 이 시점은 위에서 살펴본 신간회 해소가 논의 단계를 넘어 실제로 진행되던 기간에 위치해 있다. 『삼천리』의 기사가 신간회 해소 논의가 진행되는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해소 논의가 ‘민족 내 계급 사이의 통일보다 노동자 농민 계급의 통일을 강조’하는 입장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은 이 절에서 본격적으로 해명해야 할 문제, 즉 ‘무산대중’ 용례의 감소 및 ‘노동대중’ 용례의 급증 현상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당시 신간회 해소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몇 가지 점에서 서로 입장이 상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간회가 한시적(限時的) 협동전선체이며 현 단계에서 신간회의 대중을 노동, 농민운동으로 분리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협동전선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했다.³³⁾ 신간회 내의 구성원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신간회 해소 논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소 찬반론자 모두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1931년 무렵 ‘노동대중’ 용례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1931년의 용례에서 ‘노동대중’(33회) 이외에도 ‘노동대중’(5회), ‘노동자 농민 대중’(1회), ‘농민대중’(3회), ‘미조직 노동대중’(1회), ‘조선노동대중’(1회) 등 노동자와 농민 집단을 가리키는 용례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당시 해소 논의에서 찬반 논자 간에 큰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소시민(小市民)’의 향방이었다. 당시 지방지회 일각에서는 해소 논의 과정에서 ‘계급 분화론’과 ‘신간회 해체론’이 쟁점이 되어 다른 지회의 논의에도 영향을 끼친 바 있다. ‘계급 분화론’은 노동자와 농민을 신간회에서 빼내어 각각 계급별 단체, 즉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에 편입시키고, 신간회에는 소

33) 이균영, 앞의 논문, 96쪽

시민과 소부르주아층만 남겨두며, 소시민과 소부르주아 가운데 몰락한 분자는 계급별 조합에 편입시킨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 신간회 해체론은, 현재 조선에서는 민족운동이 불필요하고, 민족운동자나 소시민, 소부르주아는 극소수이므로 협동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므로 하루빨리 신간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³⁴⁾

이러한 사실을 본 논문의 관심사와 결부시키자면 이러한 입장 차이는 '무산대중' 용례의 범위 및 '무산대중'에서 '노동대중'으로의 중심이동 등과 관계 깊다. 1920년대 전반에 사용된 '무산대중' 용례는 내부 구성을 언급한 경우가 거의 없다. 간혹 '무산대중'이 '노동자, 농민, 병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했고,³⁵⁾ '노동, 청년, 여자, 백정' 등을 포함하기도 했으나,³⁶⁾ 전자는 러시아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고 후자는 대중운동의 부문운동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거론되었다. 그러나 드문 사례이긴 해도 이처럼 '무산대중'의 범위에 노동자, 농민 이외에 다른 계층이 포함되었던 사실은 중요하다

34) 이상 '계급 분화론'과 '신간회 해체론'의 입장은 이애숙의 다음 연구에서 인용했다.

다만 용어에서 '무산대중' 등 일부는 필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수정했다. 이애숙, 앞의 논문, 69쪽

35) "이 혁명의 수행자는 누구인가? 그는 共產黨이었다. 無產大衆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표할만한 共產黨이었다. 그래서 勞働者, 農民, 兵士는 맛찬가지로 뿔오쏘아의 켈렌스키 內閣을 倒壞하기에 共產黨과 악수하였다. 진실로 그네는 총명한 혁명적 판단으로써 一切의 권리를 소비에트에게로 하는 標言밧헤 합치하였다." (밀줄강조-인용자) ((필자미상), 1924.4 「모든 問題 모든 方面을 取扱하는 組織」-러시아의 共產黨은 었더한 일을 하는지-」 『개벽』 46, 65-66쪽)

36) "一. 社會運動이 本質的으로 無產大衆自體의 運動인 以上 우리는 어데까지 든지 現實에 立脚한 大衆의 實際的要求에 應히야 終局的 理想을 向히야 邁進하기를 期함. 一. 우리는 大衆運動의 部門이 되는 勞農, 青年, 女子, 衡平運動의 知的 敎養과 階級的訓練과 아울러 모든 現狀打破運動을 支持하는 同時에 經濟問題에 置重하고 科學思想을 普及케하며 都市와 農村의 協同을 期함." (밀줄강조-인용자) (TY生, 1926.3 「社會運動團體의 現況, -團體·綱領·事業·人物-」 『개벽』 66, 48쪽)

다. 1931년 신간회 해소 찬반논의에 이르면 신간회 내부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자·농민’의 계급적 재배치 문제가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이전의 ‘범박한’ ‘무산대중’ 용례 대신 ‘노농대중’ 용례가 해소 찬반논의에서 핵심용례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눈여겨 볼 점은 신간회 해소 반대론자는 찬성론자에 비해 신간회 내에 조직되어 있는 ‘소시민’에 대해 주목한다는 사실이다. 1931년 1월 『삼천리』 기사에서 신간회 해소를 반대하는 홍양명은 신간회 조직의 구성분자 중 대다수가 ‘노동자, 농민, 무산소시민(無産小市民)’임을 환기시켰고, 같은 입장의 박문희도 “무산계급입장으로 보아 조선에 있어서 영원한 협동전선은 (전략상) **노동자, 농민(貧農) 무산 시민의, 합동당이** 아니면 안된다.”(밀줄강조-인용자)라고 했다.³⁷⁾ 이에 비해 신간회 해소를 주창하는 이원지회는 “계급의식이 철저히 못한 **무산대중**은 … 신간회를 신앙하게”되고 “따라서 그 지도적 지위에 있는 소부르주아지-를 존경하게” 되어, “이러한 운동은 **노농대중**을 우익화”(밀줄강조-인용자)한다고 했다.³⁸⁾ 여기서는 신간회 조직구성원을 ‘무산대중’으로 거론하면서도 관심사는 ‘노농대중’에게 가 있음이 드러난다. 1931년 6월 신간회 해소론의 입장을 취하는 박중은도 신간회 해소를 반대하는 ‘좌익민족주의’ 계열의 ‘조선일보 논설’을 비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과거의 협동전선체를 단연히 뜯어서 늘상 노동자계급의 지도 밑에 노동자, 농민을 결합시키고 그 영향 밑에 도시소시민을 동원시켜 결합시키며 조직하자는 것”이었다.³⁹⁾ 박중은도 ‘도시소시민’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도시소시민’은 ‘노동자계급 - 노동자·농민 - 도시소시민’이라는 위계적 관계 속에 설정되면서 노동자·농민과는 구별되고 그들

37) 洪陽明·朴文熹, 1931.1 「新幹會解消問題批判」 『삼천리』 11, 14쪽·18쪽

38) 新幹會 利原支會, 1931.4 「我等의 運動과 新幹會, 今春全體大會와 解消論의 展望을 兼하여」 『삼천리』 14, 12쪽

39) 朴鍾殷, 1931.6 「朝鮮日報 社說批判」 『삼천리』 16, 69쪽

보다 정시되는 느낌을 받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2기의 정점인 1931년 무렵 '대중' 관련 용례의 빈도수 증가를 주도한 핵심 용례로 '노농대중'이 부상한 사실은, 노동자·농민을 계급적 조직으로 전유하고자 했던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주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신간회 해소에 대한 사회주의 세력 내부의 '찬-반' 양측은 신간회 내의 '소시민'에 대하여 각각 '소극적-적극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곧 제1기 때부터 노동자, 농민 이외에 좀 더 포괄적인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던 '무산대중' 용례가 의미의 균열을 보이고 축소되어 갔음을 뜻했다. 또한 그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협동 대상에 '소시민'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한 의미투쟁이기도 했다.

둘째, 이 시기에 '대중' 용례가 더욱 증가한 것의 의미를 <부표 3>에 제시된 1931년의 의미장과 1923년의 의미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자. 제1기의 후반부터 '무산대중' 용례의 빈도수를 넘어 증가하던 '대중' 용례(단독형)는 제2기에 들어와서 더욱 증가하여 1931년에는 222회나 된다. 이 해의 전체 빈도수 595회의 37.3%에 달하는 높은 비중이다. 이것은 제1기와는 달리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대중' 개념이 더욱 확산되어 갔음을 나타낸다. 이런 양상은 제2기 전 기간에 걸쳐 관찰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용례, 즉 '복합명사형'이나 '수식어 전치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운동' 계열에서는 '대중운동'이나 '대중조직', '식민지 대중'을 비롯한 다양한 용례가 나타났고, '근로대중', '부인대중', '어민대중', '청년대중' 등 계층을 가리키는 용례도 출현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계열에 속하는 용례들, '대중극장', '대중소설가', '대중예술', '독자대중', '소비대중' 등도 빈도수는 적으나 등장했다.

이러한 용례들이 대체로 많이 집결된 1931년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1923년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 개념의 의미장에서 우

선 각 ‘장’들의 밀도가 훨씬 높아졌다. 1923년의 경우 빈도수에서 2회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면 1931년에는 10회까지 나타난다. ‘대중’ 개념과 의미상 등치되는 단어를 모은 ‘계열의 장’에서는 ‘민중’의 빈도수가 10회로 최고이다. 이것은 곧 이 시기에 와서 ‘무산대중’이 아니라 ‘대중’ 개념이 독자적으로 ‘민중’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그 밖에도 ‘노농대중’, ‘노동자계급’, ‘군중’ 등이 각각 3회를 기록한다. 그러나 여전히 용례의 심층(= 빈도수 1회)에서는 ‘대중’ 개념이 ‘동포’, ‘민족대중’, ‘이나라 백성들’ 등 민족구성원 전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중’의 속성을 묘사하는 술어로는 ‘광범위’하다는 표현이 4회로 빈도수가 가장 높다. 그 외에는 특정 표현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빈도수 1회를 이루는 표현들을 보면, 1923년과는 달리 ‘각계각층의 통일을 열원(熱願)’한다거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욕구가 강하다’, ‘조직 훈련의 면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진취적’이라는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부정적 이미지 못지 않게 많다. 당시 ‘대중’의 반의어로는 ‘지도자’가 8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이 ‘전위’·‘자본가’(각각 4회), ‘간부’(3회) 순이다. ‘대중’ 논의의 ‘원인’으로는 ‘신간회’가 10회로 가장 높았다. 결국 1931년의 의미장에서도 신간회 해소 논의에서 파생하는 여러 경향이 지배적으로 투영되는 가운데 제1기부터 지속되던 경향들, 예컨대 ‘대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민족구성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 등이 저류에 흐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2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는 아직 이 의미장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직 이 계열에 속하는 관련 용례들의 양적 빈도수도 많지 않았고, 이전부터 지속되던 용례가 아니라서 일정한 강도를 가진 질적 의미를 담게 마련인 당시의 의미장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대중문화'의 부침(浮沈) (1934~1942)

제3기는 1934년 이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제1기, 제2기까지 전체 용례 빈도수를 주도했던 '사회운동' 계열의 용례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제2기 초반부터 생겼으나 '사회운동' 계열 용례의 높은 빈도수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았던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용례의 '표면'에서는 '대중소설' 용례가 1934년부터 다수 사용되다가(12회), 1936년에는 22회로 정점에 도달한다. '대중문학'도 1936년과 1940년에 각각 5회씩 등장했다. '심층'에서는 '일반대중' 용례가 상대적으로 앞 시기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으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기에는 1937년 이후 전시통제정책의 시대상황이 일정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의 용례에서는 제2기와 같은 밀도나 강도는 약해지고 '대중' 관련 용례를 사용하는 기사 수 자체도 적다. 이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절에서는 첫째, 1936년 무렵까지의 '대중문화' 계열 용례의 흐름에 우선 주목하고, 둘째, 1937년 이후 이러한 용례에 전시통제정책이 반영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936년 무렵까지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도표 2>로 돌아가면 제2기에 높은 빈도수를 보였던 '사회운동' 계열의 '노동대중', '대중운동', '무산대중' 등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농민대중'만이 1939년까지 1년에 한 두 차례 보일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는 '대중공론' 용례가 제2기인 1930년부터 등장했고 이 시기에 와서는 '대중소설'과 '대중문학'의 빈도수가 높아졌다. 그런데 '대중공론'이 1930년에 많이 등장한 것은 주로 '대중공론'이라는 잡지이름을 인용하는 맥락이며, 그것은 '대중공론'이 1930년 3월에 창간된 사정과 관계 깊다. 또한 '대중공론'의 논조는 좌우익이 함께 참여하는 경향을 취했기 때문에 '신간회의 정신이 어느 정도 이 잡지에서 실현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향 때문에 일제의

표적이 되어 동년 9월 조기에 폐간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제3기인 이 시기에 들어와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이 ‘대중소설’과 ‘대중문학’ 등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들이다. 이 계열의 용례들이 두드러지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현실 방면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도시 대중문화의 성장이 ‘대중’ 개념의 관련 용례들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1927년 방송을 개시한 뒤, 1933년 일본어 제1방송과 조선어 제2방송의 ‘이중 방송’ 시스템을 갖추면서 라디오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보통학교도 1923년부터 서당 학생수를 초과하면서 본 궤도에 올라 보통학교 취학률은 1924년 14.7%에서 이후 급증하여 1938년에는 33.2%에 달했다. 이 시기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경성에서는 1929년 현재 하루에 전차 승객 11만 여명, 버스 승객 1만 여명이 이용하게 되어 대중교통 안에서 반상과 남녀노소의 구별이 사라지고 교통 시간표는 시민들의 생활에 널리 침투해 갔다. 근대 소비문화도 확산되었다. 1920년대에 들면서 일본인 상권에는 백화점이 등장하여 소비문화의 확산을 촉발했고 카페나 다방 등의 업소가 그 뒤를 이었다. 1930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자본주의 소비문화는 조선인 상권이 형성된 종로로 영역을 넓혀갔다. 이러한 양상이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의 대중문화가 신문·잡지·영화·음반·라디오 등 매체의 발달과 맞물리면서 본격화되었다.⁴⁰⁾

둘째, 담론의 차원에서는, 신간회 해소 논의 등 사회운동 방면의 쟁점이 식자층 및 언론매체의 지면을 좌우하던 상황이 사라지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좀 더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해졌다. 『개벽』 1925년, 계급문학에 대한 잡지사의 설문에 이광수, 염상섭 이외에 프로문학을 주장하던 김기진, 박

40) 이상 식민지 조선에서 진행된 도시 대중문화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요약·발췌했다. 장규식, 2008 「근대문명의 확산과 대중문화의 출현」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길잡이』 하, 지식산업사, 250~258쪽

영회가 답변하면서 시작된 프로문학 과 비프로문학 간의 논쟁은 1927년 신간회 결성 이후에도 계속 전개되었으나 신간회 해소를 전후한 시기부터 중단되었다.⁴¹⁾

1934년에 '대중소설' 용례를 11회나 사용했던 홍효민의 글을 보면 이런 상황이 언론매체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백남(尹白南)의 대중소설을 읽는 독자가 늘어가는 상황을 대중소설의 사회적 기반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맥락에서 그는 “딱딱한 예술소설, 경향소설(傾向小說)에서 염증이 난 독자가 이를 환영하였다”는 점을 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⁴²⁾ 이러한 '대중'의 기호에 『삼천리』의 발간주체들도 적극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1936년 2월, '대중소설' 용례가 20회나 사용된 '소설강좌' 기사의 필자는 조금 전에 언급된 윤백남인데, 글의 서두에는 그는 “삼천리사 파인(巴人)兄의 소청(所請)은 대중문학 강좌라는 네모가 번듯한 제목이었으나 원래 두뇌가 산만한 필자로는 …(중략-인용자)… 제목과 같은 윤곽이 흐릿하고 등글넙적한 내용으로 책임을 면코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⁴³⁾ 이 기사의 당초 기획에 삼천리사 발행자 파인 김동환의 의도가 반영된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기사에서 윤백남은 대중소설을 한편에서는 '순문예술소설'과 구별하고자 애쓰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속소설'과도 구별하고자 했다. 이러한 주제는 동년 11월호에 실린 「장편작가회의」라는 좌담기록에서도 중

41) 프로문학과 비프로문학의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했다. 김재용, 2009 「프로문학 논쟁」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2, 역사비평사, 105~114쪽

42) 洪曉民, 1934.9 「作家研究(1)」, 『黑頭巾』과 白南의 藝術, 簡登한 一般의 考察」 『삼천리』 6-9, 232쪽. 여기서 필자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極히 皮相의 觀察인 것이다”라고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필자의 의도와는 좀 다른 문맥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예술소설, 경향소설에 대한 '대중의 염증'이 대중소설에 관한 논의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43) 尹白南, 1936.2 「小說講座」 『삼천리』 8-2, 186쪽

요한 논제로 이어진다.⁴⁴⁾ 이 글에서도 ‘대중문학’ 용례는 5회 나온다.

‘대중문학’, ‘대중소설’ 등에 관한 당시 독자들의 관심 및 이에 부응한 삼천리 측의 동향은 일본의 그것과 연동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1990년대에 영인된 일본의 근대 용어사전 집성류를 개괄하면, ‘대중문학’에 관한 항목 설명은 1930년 무렵 “문화적 교양이 낮은, 광범위한 대중을 상대로 발표되는 문학”으로 정의하면서도, “대중문학이라는 용어는 오히려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계급적 관점을 강하게 투영했다.⁴⁵⁾ 이런 규정이 이후의 용어사전에도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다른 사전에서는 동일 항목에 대해, “대중을 향한 문학. 통속문학. 역사적 소재를 흥미 위주로 취급한 읽을거리, 즉 문예적 가치로 풍부한 강담식 소설”로 설명하거나, “중류계급을 겨냥한 소설. 순 예술적 작품과 통속문학의 중간을 취한 것. 그 작자를 대중작가”로 설명하는 등 위의 계급적 관점과는 상이한 갈래도 혼재했다.⁴⁶⁾ 그러나 1932년 하반기부터 1933년에 이르는 기간의 사전 항목설명을 보면, 대체로 프로 문학에 관한 설명은 탈각하고 ‘문화적 교양이 낮은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문학’이라는 의미로 설명되거나,⁴⁷⁾ 그 외에 ‘대중문학’을 “순수문학에 대비되는 말”로 규정하면서도 ‘뛰어난 대중문학은 예술적으로 순수성을 가지며, 뛰어난 문학은 항상 대중성을 가진다’고 서술하여 대중문학의 성격 규정에서 순수성과 대중성의 상호관련성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3기의 현실적, 담론적 상황, 그리고 『삼천리』 등 잡

44) (필자미상), 1936.11 「長篇作家會議」 『삼천리』 8-11

45) 山田清三郎・川口浩 編, 1930 『プロレタリア文芸辞典』(松井栄一・曾根博義・大屋幸世, 1994-1996 『近代用語の辞典集成』 31, 東京: 大空社 소제)

46) 小山湖南 著, 1931 『これ一つで何でも分る現代新語集成』(『近代用語の辞典集成』 17); 尾尾達人 編, 1931 『ウルトラモダン辞典』(『近代用語の辞典集成』 18).

47) 鷗沼直 著, 1932 『モダン語辞典』(『近代用語の辞典集成』 22); 菊池寛 著, 1932 『新文芸辞典』(『近代用語の辞典集成』 28)

지 매체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등은 '대중' 개념의 의미장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을까. 이 시기 전체 빈도수가 가장 높은 1936년의 의미장을 살펴보자. <부표 4>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1931년의 그것에 비해 전체적으로 빈도수 자체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는 '대중' 관련 용례를 포함하는 기사 총수의 절대수가 1/3 정도로 감소한 점을 생각하면 특별히 더 많이 낮아졌다고는 보기는 힘들다.⁴⁸⁾ '대중' 개념과 계열관계에 있는 용어로는 '조선사람'이라는 전칭 용어가 3회로 가장 많은 것이, '민중'이 10회로 가장 많았던 제2기의 상황과 대비된다. '레코드 팬'이 2회로 그 다음인데 이는 이미 살펴본 당시 '대중문화'의 발달과 그것이 '대중' 용례에 반영되던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해 준다. 이처럼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가 증가한 상황은 이 의미장에도 반영되었다. '대중'에 대한 속성에서 '통속적'이 3회로 가장 빈도수가 높고, 이에 관한 낮은 빈도수에서도 앞 시기와 같은 '운동적 주체'로서의 속성보다는 평이함이나 개방성(≒大融的) 등 문학이나 예술과 연관되는 수식어가 주류를 이룬다. 이는 '대중'의 반의어에도 드러난다. '대중'의 반대 의미로는 '계급적'이나 '선각자' 등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용어도 보이지만, 이보다는 다수가 아닌 '소수', 그리고 '통속'이 아닌 '순수' 등이 더 자주 사용되었고, '대용적(大融的)'에 반대되는 '소친적(小親的)', 기타 웅변가, 예술가, 문예부 간부, 고급독자 등도 낮은 빈도수 이나마 종류 면에서 큰 비중을 점한다.

다음으로 1938년 이후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미 제1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1938년 이후에는 특정 용례가 빈도수 증가를 주도하는 경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대중' 등 전칭 용례에서 전시정책의 상황을 반

48) <부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연도별 전체 용례 수가 1931년에는 373회였던 것이 1936년에는 142회가 되어, 1936년의 빈도수는 1931년의 38.1% 수준으로 줄었다. 두 해의 의미장에 표시된 주요 용어들의 빈도수나 밀도도 1/3 수준 혹은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영한 용례사용이 보이는 정도이다. 이것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삼천리』가 친일적 논조로 기울어지면서 일제의 전쟁수행에 협력하는 기사를 실거나 자체 검열기제의 작동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특정 용례를 제시하는 상황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37년부터 1942년까지 ‘대중’ 관련 용례를 포함한 총 85개의 기사 중에서 ‘대중’이 들어간 용례가 높은 순서대로 2개를 들면 최고가 20회, 그 다음이 15회이다. 그 다음은 7회가 1개, 그 다음은 모두 5회 이하이다. 빈도수 1위와 2위의 글에 주목해 보면, 두 글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1위는 1938년 12월에 발표된 글인데 필자는 일본 내무성 보안과장이다. 총 20회의 빈도 중 ‘대중’이 10회, ‘사회대중당’이 7회이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대중’ 용례나 ‘사회대중당’은 일본 공산주의 운동세력의 경과를 비판적으로 정리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었다. 오히려 그는 글 중간 중간에 “국민제군(國民諸君)의 가운데는 …(중략-인용자)… 소위 인민전선운동이 종래의 운동에 비하여 합법 온건화하였기 때문에 …(중략-인용자)… 이에 동정적·지원적 태도에 나아가는 일이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⁴⁹⁾ 또한 “총후(銃後)의 일반 국민은 … 코민테른의 책모를 간파하여 … 이런 불온사상을 전적으로 격퇴·제거하기 위하여 당국에 협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했다.⁵⁰⁾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더 있는 바, ‘대중’ 대신 그가 호명하고 있는 대상은 ‘국민’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글은 외관상 ‘대중’ 용례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듯해도 오히려 전시통제로 접어들 뒤 정책적 의도에 의해 ‘대중’이 가진 의미가 힘을 잃고 분해되어 가는 것

49) 內務省 保安課長, 1938.12 「戰時 國內 思想運動, 共產主義 勢力의 檢討와 國民의 方向」 『삼천리』 10-12, 72쪽

50) 內務省 保安課長, 「戰時 國內 思想運動, 共產主義 勢力의 檢討와 國民의 方向」, 73쪽

을 나타내는 징후로 읽힌다.

빈도수 2위는 사회주의자 김명식이 1938년 5월에 발표한 글이다. 총 15회 중에서 '대중'이 11회 사용되었다. 그는 여기서 '낭인(浪人)'이라는 일군의 집단에 대해 사회학적 비판을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낭인'은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고 마작이나 경마장, 퇴폐적 문학에 탐닉하는 집단이다. '대중'은 여기서 '낭인'을 비판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상정된다. 즉, 그는 낭인에 대해, "저의 교양에 의한 생활이 한갓 특권적 지위를 동경하고 추구할 뿐"이라서 그들이 가진 "일반인과 다른 교양적 특수성은 사회를 위한 계몽적 의의도, 대중을 위한 지도적 역할도 가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⁵¹⁾ 이런 전제 위에서 그는 "교양 계급으로서 일찍 대중과 절연(絶緣)되고 또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도는 낭인(浪人) 생활을 영위한다 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파렴치한 투기배가 아니면 데카다니스트가 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⁵²⁾

낭인 비판의 전제가 된 그의 지식관은, "정치적 교양이란 가장 상식적 교양"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즉, "만일 정치적 교양과 대립하는 문화적 교양이 있다 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취미적이 아니면 도락적(道樂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⁵³⁾ 이러한 그의 인식에서 정치의 영역과 문화·일상의 영역은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후자로 도피하는 경향, 특히 "연문학(軟文學)에 탐닉하여 사치·음란함과 방종으로써 인생관을 삼아 극기도 규율도 공덕(公德)도 조직도 질서도 돌아보지 아니함"을 특히 강도높게 비판했다.⁵⁴⁾

이상과 같은 김명식의 '낭인' 비판은 결국 그동안 전개되어 온 식민지 조

51) 金明植, 1938.5 「朝鮮浪人論」 『삼천리』 10-5, 75쪽

52) 金明植, 「朝鮮浪人論」, 76쪽

53) 金明植, 「朝鮮浪人論」, 76쪽

54) 金明植, 「朝鮮浪人論」, 77쪽

선의 도시 대중문화에 대한 환멸과 비판적 정서를 깔고 있었다. 그가 언급하는 ‘대중’에서도 이전과 같은 운동적 주체로서의 ‘대중’에 대한 기대나, ‘대중문화’의 소비주체로서의 측면에 대한 관심 혹은 계도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낭인’을 바람직한 지식인 혹은 지도자 상에 대한 반면교사로 설정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신간회 해소 이후 사회운동적 기반의 상실, 도시 대중문화의 폐해에 대한 환멸은 이미 이전부터 지식인으로서의 김명식에게 식민지 근대성이 초래한 딜레마적 상황, 즉 ‘운동과 일상의 분리와 그 매울 수 없는 간극’의 이미지로 표상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이후 일본 국내에서 ‘혁신적’ 세력이 집권한 상황 속에서 김명식은 일본 제국적 질서 속에서 조선적 입지 마련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협화론적 내선일체론’의 입장을 취한다.⁵⁵⁾

중일전쟁 이후 ‘대중’ 용례를 많이 사용한 두 글, 즉 내무성 보안과장의 글과 김명식의 글은 전자는 실제로 ‘국민’에 중심을 두었고 후자는 ‘대중’과 지식인의 연결을 상정하는 차이는 있었지만, 두 글 모두에서 ‘대중’은 이전 시기에 주류를 형성했던 두 흐름인 ‘사회운동’ 계열과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와는 괴리를 보였다. 1938년 ‘대중’ 개념의 의미장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부표 5〉에서 ‘대중’과 계열관계에 있는 용어로 오히려 ‘민중’이 5회나 부각되어 있는 점은, 조금 전에 살펴본 맥락에서 본다면 ‘대중’의 의미적 확장이 아니라 ‘대중’이 의미적으로 축소되고 ‘민중’으로 대체되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대중’에 대한 묘사에서 ‘총후미담 만발’이나 ‘급속한 국민적 자아’ 등이 등장한 것, 그리고 부정적 묘사가 더 많아진 것도 이러한 동향을 뒷받침한다. ‘대중’의 반의어로

55) 김명식의 전향과 전시통제기의 정세인식에 관한 내용은 홍종욱의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홍종욱, 2006 「해방을 전후한 주체 형성의 기도 -좌파 지식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는 '지도자'가 3회로 가장 많다. 낮은 빈도수로는 관경, 관원이 새로 추가된 것이 전시체제의 상황의 반영이다. 앞서 살펴본 김명식의 '낭인'도 대중의 반의어로 나타난다.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의 특징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집단적 행위자, 특히 '대중'을 개념사적 방법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분석의 주안점은 어휘통계학적 방법을 위주로 하면서, 양적·질적 검토, 통시적·공시적 관찰 등을 포괄한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데 두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개벽』, 『별건곤』, 『삼천리』에서 '대중' 개념 관련 용례 199종을 추출한 뒤, 이를 토대로 첫째, 용례 빈도수 변화의 증감폭이 큰 용례를 성격에 따라 '사회운동' 계열과 '대중문화' 계열로 구분했으며, 두 계열의 존재양태를 기준으로 '사회운동 계열 중심기', '두 계열의 병존기', '대중문화 계열 중심기'의 세 시기로 구분했다. 둘째, 이러한 표면적 변동양상과 달리, 빈도수의 증감폭이 작은 '전칭(全稱)용례' 등을 '대중' 용례의 심층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표면적·심층적 변화 양상을 모두 시야에 넣고자 했다. 셋째, 첫째·둘째의 접근이 가진 통시적 관찰의 빈 곳을 메우기 위해, 중요한 4개 연도에 대한 '의미장(意味場)'을 각각 작성하여 공시적 관찰을 덧붙였다.

제1기(1920~1925)에는 사회주의자들이, 3.1운동 이후 널리 사용된 '민중' 개념과 구별하여 '대중' 개념의 사용을 주도했다. 그런데 처음에 이들은 '대중' 개념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무산대중'에 국한된 용례를 주

로 사용했으며, 사회주의의 영향을 반영한 ‘운동’ 주체로서의 의미 사용이 정착되지 못하는 등 개념 수용의 초기적 상황을 보였다. 제2기(1926~1933)에는 ‘대중’ 개념이 ‘무산대중’ 위주의 용례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사회운동적 주체와 관련한 긍정적 의미가 많았다. 이 기간엔 신간회 해소 논의와 관련하여 핵심용례가 ‘무산대중’에서 ‘노동대중’으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중’의 포괄범위가 ‘무산’ 일반으로부터 ‘노동자·농민’이라는, 좀 더 계급적 함의가 강화된 것으로 변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미 이 기간에는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가 출현했으나 1931년 의미장에 반영될 만큼 정착되지는 않은 특징을 보였다. 제3기(1934~1942)의 경우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중일전쟁 이전에는 도시대중문화의 성장과 신간회 해소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대중문화’ 계열의 용례가 활성화되고 의미장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기로 가면 ‘대중’ 용례는 형해화되면서, 한편에서는 ‘국민’ 개념이 부각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중’ 개념이 재대두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분석과 정리를 통해 일제시기 ‘대중’ 개념의 사용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고 주로 ‘사회운동’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제 식민지기 도시 대중문화의 확산에 기반을 둔 ‘대중문화’적 용례도 일정한 흐름을 이루며 지속했으나 ‘사회운동’적 용례에 비해선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대중’ 개념을 매개로 시도해 본 개념사적 접근방법은 그 방법론적 특성과 결부되어, 식민지 조선 현실의 ‘대중’ 현상이나 ‘대중의 창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탐구를 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대중’에 대한 지식인의 인식과 표상을 섬세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조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중’ 용례의 통시적 변동과 공시적 분포 양상에는 기존의 신간회 연구 등 민족해방운동사적 관점에서 주목하던 현상도 포함되는 반면, ‘식민지 근대’의 관점에 입각한 최근 연구가 주목하는 도시대중문화의 동향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양자의 상관관계, 즉 후자에서 주목하는 '대중문화' 관련 용례보다는 전자에 해당하는 '사회운동'적 용례가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도 종합적 견지에서 조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는 다소 공식적 접근으로서, '대중' 이외에 '민중', '인민' 등 인접 개념과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이러한 개념 이면에 작용하는 개념사용 주체들의 전략, 갈등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며, 둘째는 통시적 견지에서 식민지기 '대중' 개념이 가진 '사회운동'적 용례와 '대중문화' 용례의 상호관계가 해방 후 현대 한국사회로 오면서 어떻게 지속되거나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제3회 심포지엄에서 「1920~30년대 '대중' 개념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개념으로 본 식민지 일상의 모더니티』, 2010년 5월 28일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4층 세미나실, 21~53쪽).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이경돈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부표 1> 일제하 주요 집지에 수록된 '대중' 개념 관련 전체용례 동향표

번 호	대중용례	주제	형태	19 21	19 22	19 23	19 24	19 25	19 26	19 27	19 28	19 29	19 30	19 31	19 32	19 33	19 34	19 35	19 36	19 37	19 38	19 39	19 40	19 41	19 42	합계 빈도
1	대중		단	1	8	17	15	28	47	19	13	69	166	75	15	33	69	55	7	45	11	10	13			729
2	대중적		독			2	4	2	3	3		3	10	51	25	2	7	10	17	3	4	1	3	3		153
3	대중화								2	1		1	1	5	1		1	1			1					13
4	國粹大衆黨																		1*							1
5	대중정당														3											3
6	사회대중당															2				7**						9
7	사회대중당수																					1				1
8	애국대중당																	1*								1
9	대중당												1	2	1			1								5
10	대중연설																		1							1
11	대중훈련												1													1
12	대중단체													1							2					3
13	대중조직													6	4											10
14	대중조직형태															1										1
15	민족대중단체														1											1
16	비조직대중층																									1
17	대중문제														1											1
18	대중생활																									2
19	대중실업																									1
20	대중층																									5
21	대중동원																	1								3
22	대중운동																									34
23	대중운동자																									1

사 회 운 등

복 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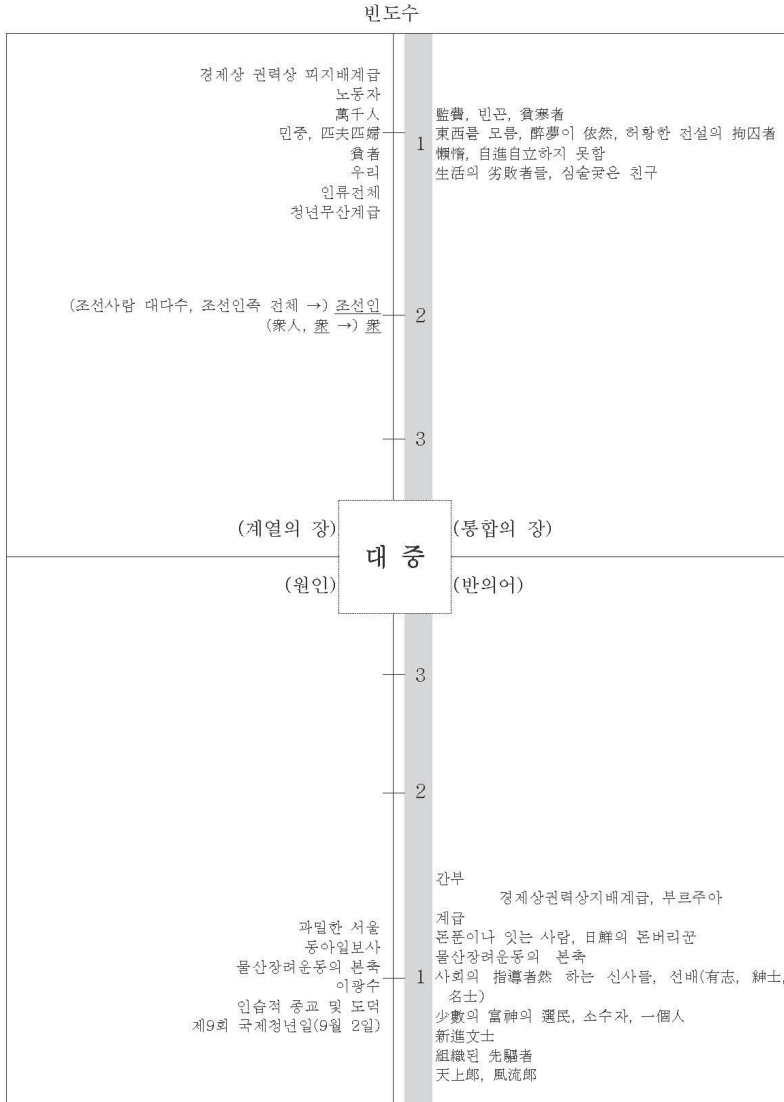
102	觀劇대중	수 식																	1	1
103	독서대중																			1
104	독자대중																			
105	레코드 펜 대중									2	2		1	2	2					9
106	문맹대중										1				1					2
107	소비대중												1		6	1				9
108	일반소비대중													1		1				2
109	팬 대중														1					1
110	1,400만 대중					2														2
111	1,700여만 대중		2																	2
112	10만 가까운 대중													1						1
113	10만 이상의 대중											1								1
114	10여만 대중					1														1
115	1500명의 대중		1																	1
116	17억의 대중		1																	1
117	1천 4백만 대중					1														1
118	2,500만 대중																			1
119	20만 대중										1									1
120	2천만 대중																	1		2
121	3000대중					1														1
122	300만 대중														1					1

[illegible]

[illegible]

기	타	수	식
164 조선대중			
165 조선사람 대중			
166 조선의 대중			
167 조선인 대중			
168 중국대중			
169 중국의 대중			
170 지방의 대중			
171 천하대중			
172 波斯 대중			
173 남성대중			
174 여성대중			
175 국민대중			
176 민족대중			
177 사회대중			
178 인민대중			
179 일반대중			
180 君國대중			
181 무의식대중			
182 민생대중			
183 白衣大衆			
184 비조직대중			
185 빈궁대중			
186 양심대중			
187 외부대중			
188 우민대중			
189 일반신도대중			

<부표 2> 1923년 '대중' 개념의 의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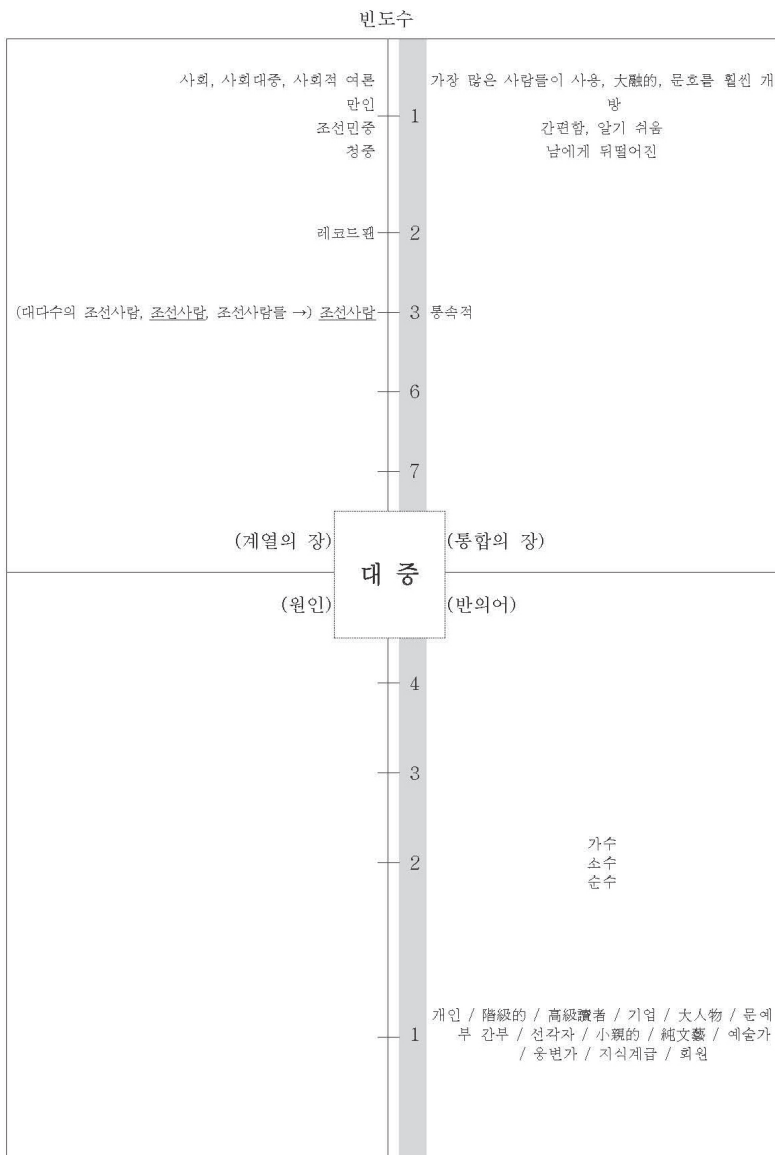


<부표 3> 1931년 ‘대중’ 개념의 의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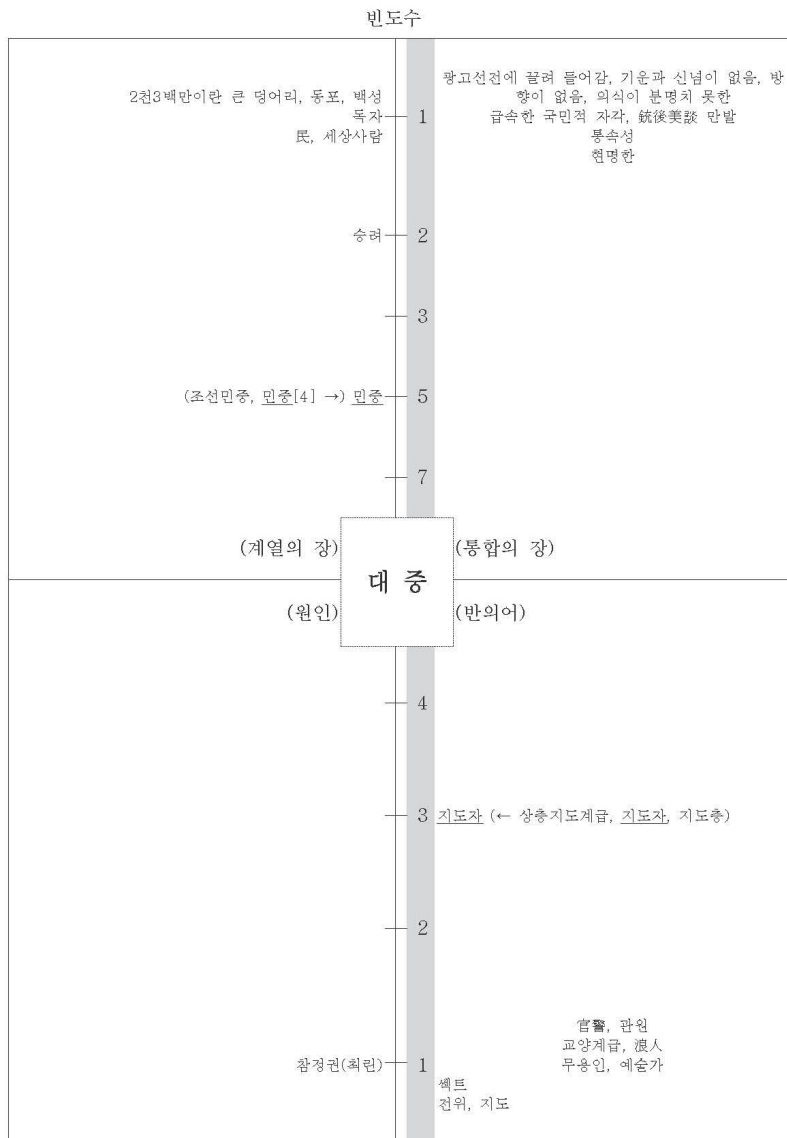
빈도수

100만 교도, 數徒 계급의 연명, 민족 내의 층 階級 동포, 민족대중, 元住民 사회 각 부문 수천농민	1	경제 노동자와 純소작농 다수, 수많은 聲壓이 低級, 仕權 薄弱, 妥協總心 憧憬하려는 勞働力の 持續如何가 問題, 세급부담 과중, 피착취 의 심화 문맹, 신토와 장기를 잃지 못할, 지식정도가 열은, 유치한 머리와 흩어진 힘 생활비의 증가 각계각층의 통일을 熱願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통일하려고 하려는 욕구가 전보다 더욱 강하여짐, 한순간도 靜息하지 않 을 自然成長의 競爭意識, 組織과 訓練이있서 政治的 經濟的으로 進取한,
유편과 신사건과 돈을 갖지 못한 이 나라 백성들 일반여성대중, 勞農夫人 전체, 이 많은 무리, 중생, 衆人 외인	2	사회민중, 무산대중 (절대다수, 多大數 →) 대다수
군중 (노동대중, 노동자계급, 프롤레타리아 →) 노동자계급 (프롤레타리아·농민, 朝鮮農民及勞働者, 勞農大衆 →) 勞農大衆	3	
	4	광범위
(조선민중, 민중[9] →) 민중	10	
(계열의 장) (원인)	대 중	(통합의 장) (반의어)
신간회 해소	10	
	8	지도자 (← 지도자[5], 지도부, 지도부대, 지도분 자)
	4	전위 (← 전위[3], 前衛分子) 자본가 (← 부르주아, 자본가, 자본관, 日本内地의 자본가)
	3	간부 (← 간부[2], 수석간부)
근우회 해체	2	계급 / 귀족 영수 (← 首領, 領袖) 지식계급 (← 인텔리겐차, 지식계급) 高階 고전(古典) 공산당 기본적 계급 당국 名士, 紳士 반동, 反動勢力 有閑階級, 소부르주아, 소수의 소부르주아 정객 部分人士, 분리, 섹트, 一個의 俱樂部, 일부분의 新 興운동자, 좁은 범위, 종파 신각자 실내, 安全地帶 위인 主義者 정당, 정치 조선사람의 대표 주최자, 지도적 지위에 있는 소부르주아지 류사
경성여자소비조합 經濟恐慌 민족적 대표의 선술 문제 암태도 조각쟁의 조선열등조합운동 전도교 합동 靑總해소문제 최승희(무용가) 형평사	1	

<부표 4> 1936년 '대중' 개념의 의미장



<부표 5> 1938년 ‘대중’ 개념의 의미장



참고문헌

- 김재용, 2009 「프로문학 논쟁」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2, 역사비평사
- 김정인, 2007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임경석·차혜영 외 지음,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 박종린, 2006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염인호, 2008 「항일전선 통일과 민족해방운동」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하, 지식산업사
- 윤해동, 2004 「식민지 근대와 대중사회의 등장」 임지현·이성시 엮음,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 기획,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 이경돈, 2009 『문학 이후』, 소명출판
- 이균영, 1994 「신간회의 분열과 해소운동」 한국현대사연구회, 『근현대사강좌』 4
- 이애숙, 1994 「세계 대공황기 사회주의진영의 전술 전환과 신간회 해소문제」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11
- 장규식, 2008 「근대문명의 확산과 대중문화의 출현」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길잡이』 하, 지식산업사
- 천정환, 2008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1)」 『상허학보: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깊은샘
- 최수일, 2008 『『개벽』연구』, 소명출판
- 許 洙, 2008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62.
- _____, 2009 「民衆' 개념 속의 식민지 경험」 『경계에 선 민중, 새로운 민중사를 향하여』 역사문제연구소 정기심포지엄 자료집(2009.12.5,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 _____, 2010 「1920~30년대 '대중' 개념과 식민지 조선」 『개념으로 본 식민지 일상의 모더니티』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제3회 심포지엄 자료집(2010년 5월 28일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4층 세미나실)
- _____, 2010 「식민지기 '집합적 주체'에 관한 개념사적 접근-『동아일보』 기사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3, 역사비평사
- 홍종욱, 2006 「해방을 전후한 주체 형성의 기도 -좌파 지식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로」 윤해동 · 천정환 · 허 수 · 황병주 · 이용기 · 윤대석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Abstract>

The Concept of 'Mass[大衆]' in the 1920s and '30s, and the reality of Colonized Joseon

Hur, Soo

Examined in this article, is essentially the usability that a research methodology dealing with 'concepts' could have as an analytic approach in studying Korea's coloniz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n this article, statistical data regarding terms and concepts will be mainly dealt with. And it will be attempt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ethod of analysis concentrating upon both the issue of quality and quantity, and employing both synchronic and diachronic approaches.

Total of 199 types of terms related to the concept of 'mass' are extracted from journals and bulletins such as 『Gae'byeok』, 『Byeol'geon'gon』 and 『Samcheon'ri』. In processing them, first, terms which showed considerable shifts in the frequency of their usage were assorted into two groups, namely the 'Social movement' group and the 'Popular culture' group. And in consideration of time periods displayed in the usage of terms that belonged to those groups, three time periods were established, which could be respectively labelled as the 'Social movement concentration period,' 'Period of two phenomena in juxtaposition,' and 'Popular culture concentration period.' Second, putting the apparent trend aside for the moment, it should be noted that 'general(全稱)' terms which showed very little changes in the frequency of usage could be regarded as showing the most substantial or even fundamental flow of changes in the usage of 'mass'—related terms, so they were examined with details in this study as well. And third, to fill in the blanks that could be still remaining,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four critical time points are discussed as 'wordfield(意味場)', and are elaborated upon as well. It was an attempt to secure a synchronic approach, which could complement the diachronic approaches attempted in the first and second tasks.

In the first period(1920~1925), the Socialists rather led the usage of the 'mass' concept, in order to set it apart from the 'people(民衆)' concept that had been widely used since the outbreak of the March 1st Movement. Yet at first, they did not use the term as an independent concept. They rather used it in association with another concept, like 'Proletarian.' Moreover, they failed to integrate the term with a Socialist aspect and establish it as a term describing

a 'subject engaged in a cause or movement.' This period clearly shows an infant stage in terms of embracing a concept.

In the 2nd period(1926~1933), the 'mass' concept escaped the confinements of referring to only the 'Proletarians,' and began to be used in various meanings, and in many cases the concept was used in positive terms as 'entities associated with social movements.' During this time period, in the wake of discussions debating whether to dissolve the Shin'gan-hwe party(新幹會) or not, the term that was most prominently used switched from 'Proletarian mass' to 'mass of Peasants and Workers', transforming the concept from merely referring to the general Proletarian class to referring to th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workers in particular. Meanwhile, in this time period the concept already started to emerge not only in the 'social movement' context but also in the 'popular culture' context as well, yet such new phenomenon was not yet distinct enough to be mentioned with regard to the historical meaning of year 1931.

In the 3rd period(1934~1942), the time before the China-Japan war and the time after the war showed some differences. Before the war, terms in league with the 'popular culture' group were more frequently used, reflecting the growth of the urban popular culture and the dissolution of the Shin'gan-hwe party. Then after the war, and when the so-called 'Wartime Mobilization period' began, the concept of 'mass' was practically rendered meaningless. Instead, a new concept of 'state citizen(국민)' surfaced, while the 'people' concept began to be frequently used again.

Key words : mass(大衆), people(民衆), 'social movement' group, 'popular culture' group, word field(意味場)